

자살유족 기록작업의 방법과 의미*

The Method and Meaning of the Archiving Project of Suicide Survivors

이영남(Lee, Young-nam)**

1. 시멘트 바닥에 비 내리는 냄새
2. 기록하는 형식
 - 1) 정서적 통제
 - 2) 임상역사
 - 3) 고유성
3. 쓰기
 - 1) 연대기
 - 2) 산문
 - 3) 나의 역사
4. 대화
 - 1) 낭독
 - 2) 듣기
 - 3) 얘기
 - 4) 대화
5. 인생의 아름다운 한 때
6. 일상의 기록생산과 일상적 아카이브
 - 1) 일상의 기록생산
 - 2) 일상적 아카이브

* 이 논문은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콜로키움(2018.9) 발표문과 전국기록인대 회발표문(2018.10)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조교수.

■ 투고일 : 2018년 12월 31일 ■ 최초심사일 : 2019년 1월 21일 ■ 게재확정일 : 2019년 1월 25일

〈초록〉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자살유족지원팀)와 자살유족 기록작업을 같이 했다. 자살유족지원팀은 자살유족의 심리지원을 위한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었다. 자조모임은 자살유족들이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며 고통을 나누는 자리이다. 자조모임이 어느 정도 진행되자 모임에서 리더역할을 수행하는 성원들이 생겼다. 이들이 모여서 글을 쓰는 에세이 모임을 구성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2명), 딸을 먼저 보낸 엄마(2명), 아들을 먼저 보낸 엄마(1명),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1명). 이렇게 6명의 사람들이었다. 에세이 모임은 사직공원 앞에 자리를 잡은 한 공간에서 매주 만났다. 한쪽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창문으로는 저녁이 들어오고 있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은 지는 해를 따라 갔다. 10명(에세이 모임 6명, 자살유족지원팀 3명, 임상역사가 1명)이 탁자를 가운데 두고는 빙 둘러 앉았다. “자,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자살유족 기록작업은 2013~2014년에 있었다. 교육적으로 중요하고 특수한 환자의 임상사례를 학회, 잡지에 보고하는 것을 의학에서는 증례(證例, case report)라고 한다. 자살유족들과 같이 했던 기록작업을 증례로 소개하는 형식을 취해 정리했다. 증례 형식을 취한 것은 기록을 말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말해야 하고, 인간을 말하기 위해서는 기록에 대해 말해야 하는 ‘인간과 기록의 상관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살유족 기록작업에 대한 글이 이런 상관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에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났다. 당시 상황을 기록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거리가 확보되었을까? 그건 자신할 수 없지만, 작업의 과정과 방법을 서술하면서 ‘일상의 기록생산’에 대해 말해본다. 나아가 기록과 기록의 의미(인간)에 관한 몇 가지 단상을 말해본다.

1장에서는 기록의 출처를 다루었다. 그것은 기록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는 누가 기록하는가 하는 것이다. 기록이 무엇인가 보다는 기록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물음이 앞서야 할 것 같다. 2장은 기록하는 형식에 관한 논의로 무엇을 위해 기록하는가, 무엇을 기록화 대상으로 삼는가, 어떤 기록형식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다뤘다. 3장과 4장은 일종의 기록방법론일 수 있는데, 3장에서는 쓰기, 4장에서는 대화를 다뤘다. 5장에서는 기록을 수용하는 의례를 다뤘다. 3개월이든 1년이든 자신이 기록했던 시간을

어떻게 수용하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6장에서는 논의의 지평을 넓혀 일상의 기록생산, 일상적 아카이브를 다뤘다.

주제어 : 임상, 임상역사, 향연, 서사, 듣기, 낭독, 글, 얘기, 대화, 플롯, 시퀀스, 스토리, 미시적 접근, 인권, 존엄, 고통, 체험, 경험, 기억, 삶, 인간, 자살, 자살유족, 생존자, 기도, 허브, 시시포스, 운명, 정의, 산문

〈Abstract〉

This archiving project of the survivors of suicide was done with the survivor supporting team of the Seoul Suicide Prevention Center. The survivor supporting team was operating a Self-help Support Group for the emotional support of the survivors of suicide. A Self-help Support Group is a place for the survivors of suicide to regularly meet and share their suffering by talking of topics hard to discuss elsewhere. As the Self-help Support Group progressed members who acted as the leader of the group appeared. They formed an essay group that writes together. Two fathers who lost their sons, two mothers who lost their daughters, a mother who lost her son, a wife who lost his husband. The essay group met each week in a place facing Sajik Park. Through the windows that took up the whole side of the room, evening was coming in. The things that happened during the day went away towards Inwang mountain following the setting sun. Ten people (six members of the essay group, three from the survivor support team, a historian for unique conversation) sat around a table, facing each other. "Now, what shall we do?"

History for unique conversation is a time that archives life by sharing conversations. At times a complete stranger, and other times people who share their ordinary lives sit around together (3-9 people,

sometimes about 15). On the table there is coffee, bread, fruits and salads, and sometimes a dish someone heartily prepared. When a bottle of wine is placed on the table, each takes a glass. Morning, afternoon, the time the evening is welcomed in, late night. It does not matter which. For six months, 3 hours when meeting every week, 6 hours when at every other week. A room where the ambience is like that of a kitchen where sunlight enters, or a cozy living room is the best location. However, there are many times when it is held in a multipurpose room in the suburbs where many meetings are held, or in a classroom of a school. The meeting place is decided according to different situations of the time. There are no participation requirements as it is said to be for themselves to write down according to archiving form while looking back their lives thoroughly, and they are the only ones to stop themselves. The archives landscape from far away would seem like trying to do some talking. However, when going into a microscopic situation one must leave themselves to the emotional dynamics. It is because it archives the frustration and failures one experienced through life. A participator of history for unique conversation must face the sufferings of their life.

The archiving project took place in 2013 to 2014. Many years have passed. Has the objective distance for archiving the situation of that time been secured? That may be uncertain, but I will speak of a few stray thoughts on archiving while depicting the process and method of operation.

Keywords : clinic, history for singular colloquium, colloquium, symposium, narrative, read aloud, writing, prose, essay, listening, conversation, talk, dialogue, plot, sequence, story, micro approach, human rights

1. 시멘트 바닥에 비 내리는 냄새

사람은 각자 고유한 냄새를 풍긴다. 지문이나 혈액형, 목소리나 생각이 고유하듯이 각자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도 고유하다. 사람의 고통에도 고유한 냄새가 풍기지 않을까.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들어온다. 상처 난 사람들이다. 한쪽 어깨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굴러 떨어지면 다시 제 손으로 들어 올려야 하는 슬픈 운명의 사람들. 이들에게 굴레가 씌워진 모양은 제 각각 다르다. 시기도 다르다. 이들에게는 시멘트 바닥에 비 내리는 냄새가 난다.”(자작나무 에세이 모임 2013, 194).¹⁾ 동무는 자신도 참여하고 있던 자조모임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사건 후에는 기쁨이라고는 없는 길을 걸어야 했다. 깊숙한 곳에서 삶을 통제하는 심장의 물성이 바뀐 것만 같다.

자조모임의 사람들은 빙 둘러 앉아서는 말을 건넸다. 시작은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이었다. 여느 모임과는 달라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누구를 잃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당신이 누구인지 자신에 대해 말해보라는 눈빛에 간단한 소개로 답했다. “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뒤에 남겨진 사람의 정체성을 바꾼다. 누구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고, 누구는 딸을 먼저 보낸 엄마였다. 또 누구는 배우자를 보낸 사람이었고, 누구는 아버지를 먼저 보낸 딸이었다. 친밀한 관계의 한 축이 상실되면서 그 관계에서 살았던 세월도 무너졌다. 그이들은 얘기하다 울었고 울음이 조금 그치면 얘기를 이어갔다.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그 일이 있은 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죄책감은 고통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 “아이는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

1) 〈자작나무〉는 ‘자살유족의 작은 희망, 나눔으로 무르익다’의 줄임말로, 당시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진행하던 자살유족 자조모임의 명칭이었다. 〈자작나무 에세이 모임〉은 자조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자살유족이 처한 고통과 회복과정을 에세이로 정리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자살유족 기록작업은 자조모임의 일환이었다. 자작나무는 자살유족 지원사업의 정신을 잘 말해주는 말일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자작나무 에세이 모임 사람들을 동무로 부를 것이다.

는 부모에게 지쳐갔을 것 같다. 세상이 뭐라든 내 아이를 보듬어 주어야 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지 않은가. 나도 남편도 이 점을 생각하면 가슴에 피멍이 든다.”(자작나무 에세이 모임 2013, 19).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후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자책감이 들고 그 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반복된다. 한동안은 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는 ‘내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자각이 힘들게 한다. 죄책감을 떨쳐내는 건 지난한 일이었다. 시멘트 바닥의 비 내리는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자기 발바닥의 감각과 무게감을 믿으며 칠흙 속을 걸었다.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잃었을 때 받는 정신적 충격을 ‘참사’로 분류한다(생명의 전화 2010(1), 11). 남겨진 사람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의학적 설명일 것 같다. 최근의 한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사건 직후에는 극심한 신체적, 심리적 고통에 직면한다고 한다. 자살유족은 두통, 눈의 피로, 이명, 청력저하, 소화불량, 복통, 호흡곤란, 두근거림, 근육통, 요통, 전신피로, 위염, 위궤양 등의 신체적 고통과 우울, 의욕저하, 불안, 불면,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분노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또한, 가족 분위기(가족 내에서도 슬픔은 각자의 몫), 대인관계(사회적 낙인), 주변 상황, 직업, 경제상태 등의 악화로 대체로 사건 직후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낸다(서울대학교 병원 2016).

자작나무 동무는 자살유족이 겪는 고통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통이 끝날 때까지는 고통이 있었다. 단 1초라도 이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고통이 잔인하게 몸에서 퍼졌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다는 그 고통들을 겪어야 했다.”(자작나무 에세이 모임 2013, 182). 살침이 살갗의 막들을 하나씩 헤집는 것 같다.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왜 고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인지, 사랑의 역운(逆運)에 답

은 없다. 때로는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지며 억울한 심정이 들기도 한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버린 삶을 나는 견디며 살아야 할까. 보이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 하루 또 하루 잔인하게 흐른다.

고통을 끝낼 유일한 해결책으로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기도 한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자살 생각은 58.3%, 자살 시도는 19.4%로 나타났다. 자작나무 동무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래, 작은애는 아들이 없는 큰집에서 잘 키워 주리라. 명랑한 딸애는 어디서든 적응하며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 잠시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곧 끝난다. 그이를 따라가는 그 순간의 아픔은 잠시일 것이다. 그래, 이 모든 고통은 끝날 수 있다.”(자작나무 에세이 모임 2013, 181-182). 자살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면서도 고통을 끝낼 해결책인양 다가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유족의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는 통계상으로도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경험적 사실이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자살유족 기록작업은 시멘트 바닥의 비 내리는 냄새가 나는 곳에서 시작되었다.

2. 기록하는 형식

1) 정서적 통제

기록을 조직하는 목적은 기록물을 물리적, 지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기록을 통제하는 층위에는 이런 층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고통을 기록하는 데에는 정서적 통제가 더 긴요한 층위이다. ‘신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에 대한 관념이 생긴다. 정서적 변화는 신체의 활동능력을 증가, 감소, 촉진, 저해하는 힘으로 작용한다’(이영남 2018). 정서적 통제는 감정적 측면, 육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차원

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자살유족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대중의 존경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해도, 그가 겪는 실존적 고통은 좌절과 실패의 고통이다. 좌절은 좌절이고 실패는 실패이다. 실존적 고통을 기록하는 시간은 슬픔의 시간이다. 그러나 그 기록이 슬픈 기록으로만 분류된다면, 이 분류법에 따라 참혹했던 순간만을 사실적으로 재현해서 기록해야 한다면, 공공기록제도에 따르면 이것이 기록의 본령이라고 지시한다면, 슬픔의 벤치에 앉아 기록하려는 시도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록은 과거에서 오지 않고 미래에서 온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상상력이 개입해야 한다. 인간의 삶을 다르게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록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삶에 들어가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기록의 근거로 제도적 기반이 아니라 믿음을 꺼냈지만, 믿음을 저장하게 상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신영복(1941~2016)의 말처럼, 커다란 고통을 겪어온 사람들일수록 작은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한겨레 2015.5.9). 신영복은 독방의 감옥 창살로 들어오는 신문지 크기의 햇살을 동무 삼아 고통을 견디었다고 한다. 기록하는 시간도 그럴 수 있을까. 창살로 들어오는 햇살처럼 작은 기쁨이 되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동무가 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된다고도 할 수 없고 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럴 수 있다는 믿음을 견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멘트 바닥 어딘가에는 잡초가 자란다. 잡초는 시멘트 바닥의 작은 틈에 뿌리를 내린다. 견고한 시멘트 바닥이지만 빈틈은 있다. 기록에 필요한 믿음, 또는 믿음으로 이해되는 기록은 시멘트 바닥의 빈틈에서 자라는 잡초처럼 작지만 생명을 키우는 힘이다.

고단한 삶일수록 1인칭으로 기록해야 한다. 전문가의 욕망을 욕망하며 자신을 기록하는 것에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다. 자신이 겪은 일을 전문가의 언어로 해석하며 기록하는 작업은 순서상 나중에 해도 되기 때문이다.

그 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감각과 정서, 생각과 언어로 기록하는 것이다. 1인칭 기록에는 슬픔만 있는 시간인 줄 알았지만 슬픔에는 기쁨도 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런 효과는 자신을 긍정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고통을 기록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는 경험적 사실이다.

고단한 삶일수록 여럿이 함께 모여 앉아 기록하는 것이 좋다. 자조모임의 취지도 이것이다. 자조모임은 자신의 고통을 말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듣는 곳이기도 하다. 술자리에서는 혼자 잘난 체 하며 떠들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자조모임에는 그럴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듣는 곳이 자조모임이기 때문이다. 자조모임이 그래야 하는 이유는 있다. 아플 때 먹는 알약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자신이 혼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깊은 위로를 주기 때문이다. 혼자 쓰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뿐더러 현실적으로 전개되는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시적인 기록공동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하며 쓰다보면 혼자 쓸 때와는 다른 윤리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

특히 타인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심화할 수 있고 자신을 상대화해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등장하는 타인은 처음 보는 낯선 타인이 아니다. 또는 내 삶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방인도 아니다. 철학에서 타인은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윤리적 도전을 하는 존재이다. 타인에는 가족, 연인, 친구, 동료 등이 있다. 이 글에서 타인은 이런 관계이다. 1인칭 기록일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와 이해에서 나오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임상역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왔다(이영남 2007).

2) 임상역사

임상역사는 몇몇이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며 삶을 기록하는 시간이다. 때

로는 생면부지 사람들이, 때로는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둘러앉는다(3명~9명. 가끔 15명 내외). 탁자에는 커피, 빵, 과일과 샐러드, 그리고 가끔은 누군가 정성껏 만들어진 음식이 놓인다. 와인 한 병이 탁자에 오를 때는 각자 따라 마신다. 오전, 오후, 저녁이 들어오는 시간, 야밤.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6개월 정도로 매주 만날 때는 3시간, 격주로 만날 때는 6시간이다. 햇볕이 들어오는 부엌이나 아늑한 거실 분위기가 나는 방이 최적의 장소이다. 그러나 온갖 회의가 열리는 도심의 다목적 공간에서 열리는 경우도 많고, 학교 교실에서도 열리는 경우도 있다. 모임 장소는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게 결정된다. 자기가 자기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서 일정한 기록형식에 맞춰 써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릴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 참여 자격이랄 것은 없다. 이런 기록풍경은 멀리서보면 애기나 좀 나누지는 식일 것 같다. 그러나 미시적 상황으로 들어가면 정서적 역동에 몸을 맡겨야 한다. 임상역사는 살면서 겪었던 좌절과 실패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임상역사 참가자는 자기 스스로 삶의 고통을 대면해야 한다.

임상역사는 쓰기보다는 대화에 방점을 둔다. 공공기록관리는 대화를 기록의 구성요소로 보진 않는다. 그러나 구술이나 심리상담은 라포와 대화가 없이는 가능할 수 없다. 구술이나 심리상담처럼, 임상역사에서 대화는 기록 구성의 본질적 요소이다. 대화는 임상역사를 구성하는 원리이자 힘이다. 임상역사는 임상의학(clinical medicine) 또는 의학과 관련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대화의 측면에서 그렇다. 임상철학의 예를 들어본다. 임상철학은 “다른 사람을 알고 싶다, 다른 사람과 닿고 싶다,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다”고 하는, 절박함에 의해 작동”(와시다 키요카즈 2014, 11)된다. 또한 임상철학은 “괴로움에 갇힌 사람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지 아닌지조차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생각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 임상철학은 고통의 장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학문”(와시다 키요카즈 2014, 62)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체취를 풍긴다. 냄새로 어떤 상황을 이해해 본다면, 임상철학에서 임상의 냄새는 병원 냄새보다는 사람 냄새에 더 가깝

다는 말이 아닐까 한다. 임상역사도 마찬가지이다.

의학이나 임상심리학에서 임상(clinic)은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정신의 학은 마음에 고통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학문이라 정의가 있다. 임상역 사는 치료담론은 아니지만 고통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도라는 점에서 임상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임상역사가 의학계열의 임상과 방 법론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기록의 관점이 중요하게 들어간다는 점이다. 임상은 의학의 고유한 장소로 출발했지만 의학만의 장소일 수는 없을 것 같다. 임상은 몸과 마음이 아파서 찾는 장소이긴 하지만 치료를 위한 장소 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임상은 서로에게 닿고 싶은 열망의 장소이다. 취약 한 상황에 몰린 사람일수록, 고립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일수록 누군 가에게 닿고 싶은 열망이 깊어진다. 질병 중심의 의학은 이런 열망을 차단 한다(에릭 J. 카셀, 2002). 그러나 기록의 관점을 취할 경우, 서로에게 닿고 싶은 열망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는 이런 열망의 문을 여는 행위 이다.

의학의 현장인 임상에서도 질병을 치우면 대화가 온전히 드러난다. 아픈 사람이 진료실에 들어와 자기의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말해야, 그 다음에 의사가 개입하면서 ‘환자와 의사의 협진’이 시작된다. 진료실의 언어는 절약 의 언어이다. 환자는 자신의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하고, 의사는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말한다. 그 외의 말들은 진료실 밖에 서 대기한다. 임상의 언어는 특수한 언어이다. 그러나 생명을 앞에 두고 있 다는 점에서 더 없이 진지한 언어이다. 그것이 이생에서 나누는 마지막 대 화일 수도 있고, 생명을 유지해도 몸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경과가 좋으면, 임상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두운 분위기는 점차 밝고 긍정 적인 분위기로 고조되다가 마침내 클라이맥스에 도달해 건강(회복)을 획득 한다. 암울한 순간이 격변해 인생의 아름다운 한 때가 된다.

대화와 임상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 플라톤의 대화편에 등장하는 향연에는 소크라테스와 그를 만나는 사람들의 독특한 대화가 수록되어 있

다. 그런 향연에는 대화가 잘 어울린다. 반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인 임상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대화이지 않을까.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인간은 아프고 고통스러울수록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 유인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침팬지는 배가 아플 때 먹는 풀이 따로 있다고 한다(리처드 랭엄 2011). 아무 말 없이 특정한 약초를 찾아 먹으면서 침팬지는 질병을 치료한다. 반면 인간은 의사를 만나 자기의 증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는다. 언어교환 없는 치료는 없다. 고통은 고립된 침묵에 갇힐 때 더욱 고통스럽다. 인간의 임상에는 언어교환이 존재한다. 임상의 보편적 특징은 의사와 환자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정신분석학이 출발한 역사적 장면도 대화(프로이트와 안나의 대화)이다. 이 대화에서 안나는 프로이트에게 이런 말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대화치료(talking cure)라는 말이군요.’(프로이트 2004, 사례연구(안나 O)). 푸코는 ‘임상의학의 탄생’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근대의학의 태동 속에는 인간의 열정만큼이나 오래된 의학적 휴머니즘의 결정체로서 ‘독특한 대화 *colloque singulier*’가 스며있음을 알 수 있다.”(미셸 푸코 2006, 21). 의사는 환자를 향해, 환자는 의사를 향해 서로가 서로를 향해 끝없이 나누는 대화는 의학의 오랜 전통이다. 임상은 매우 독특한 대화의 시간이다.

임상역사는 글을 쓰는 시간이기보다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 임상역사는 글을 중요하게 대하지만, 글을 쓰는 이유만큼은 분명하다. 글을 쓰는 이유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이다. 대화를 나누기 위해 정해진 형식(연대기-산문-나의 역사)에 맞춰 글을 쓴다. 임상역사의 글은 연주자를 위한 악보와 비슷하다. 악보는 음독(악기의 음독)을 위한 기록이다. 연주자는 악보를 해석하고 연주하면서 연주회에 온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준다. 임상역사에서는 말을 하기 위해 글이 필요한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고통일수록 사실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을 더 사실적으로 기록하려면 픽션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이 글에서는 픽션을 허구적 구성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상상적 구성으로 번역한다. 인간은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지 않는다. 욕망을 하고 상상하며 현재 상황에 맞게 구성해서 표현한다. 이 글에는 은유와 이야기가 곳곳에 들어가 있다. 이런 서술방식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기록의 관점에서 쓴 글이며, ‘기록과 인간의 상관성’에 초점을 두고 작성했다. 이런 시도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 같다. 공공기관 기록종사자에게는 그가 속한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대하는 태도와 방법이 중요하다. 반면, 인간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기록과 연결해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아키비스트에게는, 인간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이 중요하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기록이란 무엇인가보다 앞설 수밖에 없다. 조직이라는 사회적 생명체가 아닌, 인간에게서 오는 낯선 관념도 기록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3) 고유성

임상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고통을 대면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고통을 문제 삼을 때, 의학적 임상은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임상역사는 고통을 삶의 기록하는 시발점으로 삼는다. 의학은 인간의 존엄함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임상역사의 접근법은 한 인간이 그 무엇으로도 환원할 수 없는 자기 특유의 고통을 대면하면서 삶을 기록할 때, 그런 기록의 시간이 필요할 때 존엄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의학은 환자가 건네는 말보다는 정밀한 진단서를 더 신뢰한다. 그러나 임상역사는 과거의 기록에는 별 관심이 없다. 주변의 풍문에도 전문적인 담론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단지, 당신은 왜 그 고통을 문제로 삼는가, 당신은 당신의 고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묻는다.

폭력에 가격 당하고 밟히고 쓰러졌다는 사실보다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그 상황을 어떻게 다루며 살아 왔는지가 중요하다. 그 사람이 어떤 사

람인가 하는 것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인간은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며 사는 동물이다. 부당한 폭력과 한 동안의 통증과 그 통증을 대면하는 시간은 좌절과 패배로 끝날 수도 있다. 누구나 살면서 겪는 것,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잇는 것, 정의를 위한 행동, 성공의 시련으로 환원될 수 없는 좌절과 패배의 고유한 영역이 있을 것 같다. 어떤 좌절인가, 어떤 패배인가 하는 것에도 인간됨은 있다는 생각이다.

자신에게 닥치는 것들을 수용하는 각자의 고유한 태도에 주목해본다. 멀리서보면 국가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시장에서 작동하는 폭력과 수치심, 모멸감, 비통함, 서글픔으로 웅어리진 삶이다. 그러나 직접 말을 건넬 수 있는 거리에서 살펴본 아무개에게는 석연치 않은 뭔가가 있었다. 인간됨의 존엄함과 절박함이 훼손당한 사건의 진실은, 삶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런 공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임상역사는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을 역사로 써보려는 시도이다.

아키비스트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는 직업일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고통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기록의 시간으로 변형시킬 수 있을까. 임상역사는 이런 물음에 대한 하나의 시도이다. 여럿이 어울려서 대화를 나누며 고통을 대면하고 기록하는 것, 한 인간의 고유함과 인간됨의 존엄함과 절박함을 찾는 시간을 기록의 시간으로 수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임상역사라는 기록형식은 이런 고유함을 대면하는 작업이다.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환원할 수 없는 자기 특유의 고유성을 찾는 시도이다.

3. 쓰기

1) 연대기

처음에는 연대기를 썼다. 연대기는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사건 번호

를 붙여가면서 매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쓰자는 것이다. 연대기는 쓰기 형식도 단순하고 작성요령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연대기 작성방법은 〈붙임 1〉에 있다.

연대기를 쓸 때 주의할 점은 순전히 기억에 의지해서 쓰는 것이 좋다는 점이다. 이 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연대기를 쓸 때는 백지 상태에서 써야 한다. 일기를 보지 말 것, 편지도, 메모도, 책도, 공책도, 성적표도, 사진앨범도, 동영상도, 여행책자도. 뭐라도 매체에 수록된 기록물로 존재하는 것은 다 치울 것. 어렸을 적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엄마에게 전화하지도 말 것. 단지 백지를 앞에 두고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한 줄씩 쓸 것. 커서가 깜빡이는 화면을 응시한 채 그 순간 생각이 나는 것을 순순히 쓰기를. 전날 밤에 쓰는 것이 좋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막판에 몰려 몰입할 때 의외의 즐거움과 속도가 생긴다.²⁾

연대기를 쓰기 위해 필요한 작업은 따로 없다. 자신의 삶을 대면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글을 쓰는 법을 잘 몰라서, 평소 긴 글을 써보지 않아서, 철자도 틀리고 정확한 한국어 문법도 잘 몰라서, 글을 쓰는 것에 공포감이 있어도, 연대기를 쓰지 못했던 사람은 없었다. 한 번은 한 농촌지역에서 ‘할머니 자서전’ 작업을 한 적이 있었다. 작업을 했던 분 중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 한국전쟁이 나서 그 후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분도 있었다. 평생 글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오신 분이었지만 연대기를 썼다. 오히려 많이 배우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가진 것 많아서 가진 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연대기를 쓰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연대기가 이력서가 아님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삶에서 벌어진 일을 자기가 직접 쓰는 기록형식인 연대기에는 용기가 필수적이다. 구술을 할 때,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구술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우리는 모

2)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일기를 꺼내보는 사람도 있고, 틈틈이 메모를 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전날 밤에 쓰다가 포기한 채 몇 줄만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다.

두 시간의 순서대로 쓰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가만히 엉덩이 붙인 채 써 내려가면 될 일이다.

자작나무 동무들은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연대기 형식에 담아 1인칭으로 썼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렇게 매끄러운 것은 아니었다. 인간은 기록하는 기계가 아니다. 알고리즘이 제시되면 그대로 작동되는 기계처럼 인간을 대할 수는 없다. 기록하는 도중에 겪는 갈등이 계속 생기는데, 이런 갈등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말해준다. 매 순간마다 겪었던 갈등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 연대기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방식이라 생각한다. 연대기를 쓰면서 동무들이 겪었던 갈등을 말해본다.

① 동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건만 따로 쓰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이 사건 말고는 다른 것을 쓸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자식을 앞세운 사람이 자기 얘기나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연대기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쓰려면 자기가 살아온 삶을 써야 한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었다. 동무들은 어렵게 여기에 당도했으니 또 한 번의 걸음을 걸어가 보기로 서로를 다 독였다.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록일 지도 모를 일이었다. “딸을 보낸 후 죄책감에 시달렸다. 헤어 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서러움에 북받쳐 울기만 했다. 밥을 먹다가도 울음이 나오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울었다. 어느 날 울다 지쳐 딸을 생각해보았다. 딸은 이럴 때 내게 뭐라고 할까? 아마도 딸은 엄마가 죄책감으로 비틀거리며 사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 같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살아.’ 딸은 엄마가 엄마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들었다.”(자작나무 에세이 모임 2013, 32). ‘딸이 바라는 엄마의 삶’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연대기를 쓰면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다. 내 삶은 어디에서부터 어긋난 것인지, 왜 그 때 그런 선택을 했는지, 도중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는지. 그랬다면 다른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갈등이 그것이다. 그러

나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잡아주는 것은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록일 지도 모른다는 느낌이다.

물론 당연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먹고 서로를 의지해서 쓴다고 해도 심적 갈등 속에서 쓴다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조차 하기 싫어서 써야 할 숙제를 미루고 미루다 전날 밤이나 당일 날 대충 정리하거나 아예 안 쓰고 구두로만 발표하기도 했어요.”(자살유족 에세이 모임 2013, 213). 쓰는 시간은 갈등의 시간이었다.

②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사건만 쓰지 않기로 마음먹고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순탄대로는 아니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방해물이 등장해서 연대기 앞을 막아섰다. 압도적인 그 사건이 아니어도 인생에는 감춰져 있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 그것을 굳이 꺼내서 써야 할까? “처음에는 저의 대단치 않은 역사를 말하거나 쓴다는 것이 싫었어요.”(자작나무 에세이 모임 2013, 212).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이 상황에서, 묻어두고 살아도 충분했던 것들을 들춰내서 말하는 것에 대해 동무들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냐는 의문을 품었다. 잘난 체 하자고 시작했던 것은 아니지만 못난 면을 들춰내는 것이 기쁜 일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른 선택은 없었다.

1839년, 사진이 발명되었다. 인류는 사진으로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후 이런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잡동사니, 눈에 거슬리는 것, 폐품, 기이한 물건, 저속한 것들이 피사체가 되었으며 이런 삶의 잡동사니가 이제는 역사의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다”(수전 손택 2005). 동무들은 들추고 싶지 않은 것들을 꺼냈다. 충분히 아는 길만 갈 수는 없는 것이 인생인 것처럼, 동무들은 어리석어 보이는 연대기를 써야 했다.

③ 동무들은 기록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했던 순간을 기록해야 했는데, 이것은 죄책감을 자극하는 회한의 시간이 되었다.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사이에는 갈등이 한 가지 있었다. 나는 아이가 목표가 없다는 것이 늘 불만이었다. 아이는 어릴

적부터 이상하게도 목표가 없었다. 돈 욕심도 없고, 근육 욕심도 없어서 운동도 싫어하고,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것도, 대학을 다녀야 한다는 것도, 여자를 사귀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서 여자 친구를 사귄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 ‘넌 목표가 뭐냐?’, ‘넌, 아빠가 70살이 되어도 못 이기겠다.’ 나름대로는 아이를 자극해서 오기를 가지도록 하자고 한 것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었을 것이다.”(자작나무 에세이 모임 2013, 65-66). 동무는 아들에게 가했던 폭력을 썼다. 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지 생각하자, 자격이 없는 아버지라는 회한에 빠졌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는 죄책감조차 외면할 수 없는 내 삶이었다. 그것을 써야 했다. 그것이 지금이라도 기록하면서 아들과 화해를 해야 하는 당면과제였기 때문이다.

자작나무 동무들은 각자 삶을 들춰냈다. 자식과의 갈등, 부부 갈등, 시댁과 갈등. 삶을 지배했던 불안함, 길었던 평범함, 가난으로 어렵게 지내온 세월, 어렸을 적 목도했던 죽음, 자신이 저질렀던 안 좋은 일 등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기록이라는 신체를 띠고 세상에 나왔다. 벌써 오래전에 저쪽 보이지 않는 곳에 처박아 두었던 잡동사니가 기록의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대에 오른 기록들은 각자 자신의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심장에는 뭐라 말하기 힘든 응어리진 것들이 있다. 그것은 고통(서글픔, 회한, 공포, 분노, 수치심, 죄책감)으로 분류된 채 보이지 않은 곳에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딸을 먼저 보낸 제 자신이 제일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느껴져 뒤돌아 나 자신을 바라보기가 싫었거든요. 제 삶의 모든 것이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역사작업을 그만두고 싶어지더라고요. 삶의 결과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삶이 사랑받고 인정받았다기보다는 희생하고, 나 자신을 죽이면서 참고 살아왔다 느껴지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자살유족 에세이 모임 2013, 212-213). 이런 응어리는 친구, 배우자, 연인, 막역한 사이에서도 꺼내놓기 힘들다. 그러나 동무들은 용기를 내야 했다. 좋은 일만 꺼내고 싶어도 막상 연대기를 쓰면

서는 그럴 수도 없지만, 그래도 고통을 적지 않으면 삶을 진지하게 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 쓰지 않으면 다시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 같다.

지금까지 연대기를 쓰면서 겪는 내적 갈등을 말해보았다. 다음에는 연대기를 쓰는 데 작용했던 외적 상황을 말해본다. 외적 상황이라고 했지만 요지는 간단하다.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모여 앉아 쓴다는 것이다.

혼자라면 쓸 수 없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다른 사람 발표를 들으면서는 좀 달랐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는 다시 쓸 수 있었고, 속상했던 기억들을 정리하며 나를 위로하게 되었습니다.”(자살유족 에세이 모임 2013, 213).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주는 위안과 용기가 없었다면 시작할 엄두를 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힘들게 시작했어도 그 다음 번 모임에 나올 수 없었을 지도 모른다. 함께 쓴다는 것, 그래서 순서에 따라 찬찬히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 이런 물리적 균형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기록하는 시간을 지탱하는 공동체 감각이 나온다. 꼭 함께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혼자 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혼자서 찬찬히 써내려간 다수의 증언록, 자서전이 있다. 그러나 임상역사는 혼자 쓰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쓴다는 사실보다는 ‘쓰는 곳에 간다’는 사실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6장 2절에서 상술한다).

마지막으로 연대기 작업의 효과를 간단하게 말해본다. 연대기에는 인생의 빛나는 사건도 들어 있고 그림자 사건도 들어 있다. 막상 쓰다보면 의외로 밝았던 자신의 삶에 놀라게 된다. 대체로 그렇다. 같이 자리를 하고 있는 동무들의 해석이 나의 익숙한 해석과는 정반대일 때도 종종 있는데 그럴 때는 자신이 살아온 시간에서 어떤 신비감마저 느껴진다. 쓰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쓰면서야 비로소 만난다. 무의식적으로 희미하게 느끼는 것과 글로 쓰면서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것 같다. 만약 슬픔만 있었다면 쓸 수 없었을 것이다. 빛나는 계열과 그림자 계열이 새끼 꼬이듯이 엮일 때 생애를 이끌어온 심층의 사건을 대면할 용기

를 낼 수 있다. 연대기 다음에 써야 하는 것은 심층의 사건이다.

2) 산문

연대기를 쓴 다음에는 산문을 쓴다. 산문은 연대기 사건들을 몇 개의 계열로 나눠서 정리하는 작업이다. 연대기에 있던 사건들을 몇 개의 계열로 나눠서 다시 쓰기 시작하면 자신이 아직 쓰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 왜 그것을 남겨두고 있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더 쓰면서 서서히 심층의 사건을 만날 수 있다. 산문은 심층의 사건을 만나는 시간이다.

산문은 “매력, 비탄, 수자타, 고프스크, 심장사람, 시대의 격랑” 등의 주제로 여력이 닿는 만큼 쓴다. 이 중 매력은 필수이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정한다. 주제마다 작법이 있고 고유한 기승전결이 있다. 순서에 맞춰 쓰면 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작문시간은 아니라는 점이다. <글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작법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렇게 써야 한다>는 올바른 작문법은 퇴장하기 바란다. 어떤 인생이든 그 자체로 충분하듯이 어떤 글이든 그 자체로 충분하다. 그가 어떤 정서와 방식으로 글을 쓰는지 하는 그의 고유한 문체가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글에서 동무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흥중에 있는 것은 솔직해야 꺼낼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줄음이 몰려옵니다. 체격도 좋고 이야기도 조리 있게 잘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줄립니다. 그래서 결국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당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줄음이 몰려와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그 분이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다치바나 다카시 외 2007, 125). 연대기이든 산문이든, 문제는 글이 아니라 용기이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동무가 긴 글을 써왔다. 동무들은 둘러앉아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뭔가가 빠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은 드라마 같았다. 대

화의 결론은 결국 용기를 내보자는 것이었다. 그 다음 번 모임 때 동무는 빠진 부분을 써가지고 왔다. 사실 동무도 쓰고 싶었으나 내심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글을 보고서야 우리는 비로소 동무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산문을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매력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역사를 이끌어 온 힘, 매력이 있다.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고유함이 있고, 그 고유함이 다른 누군가를 끈다. 누구에게나 잘났든 못났든 여기까지 자신을 이끌어온 고유한 힘이 있을 것이다. “매력은 뛰어나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보다 지금까지 그 사람을 지탱해주었던 고집, 아집 등 못난 매력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아픔을 딛고 돌아난 새 살 같은 매력을 서로에게 알려주는 시간이었어요. 한 사람을 두고, 여러 사람이 발표하는 매력은 정말 비슷하더라구요. 못난 매력이지만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주었던 것을 승화시켜 주는 시간이었어요.”(자작나무 2013, 214). 삶을 이끌어가는 힘으로 작용하는 매력이 그 사람을 여기까지 찬찬히 다독이며 이끌어 왔을 것이다. 매력은 자기 삶을 기록하는 관점이다.

② 비탄은 연대기의 고통을 다시 쓰는 작업이다. 연대기에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어도 상관은 없다. 연대기 형식은 하나의 고통에 너무 침잠하지 않고 삶의 전체적인 풍경을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발길이 오래 머물 수밖에 없다. 연대기 곳곳에 산재한 고통을 일일이 다 서술할 순 없더라도, 기왕에 시작한 자리라면 어떤 시기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는 다시 써야 한다.

비탄은 받아들이 수 없는 사건을 상징한다. 비탄에는 비애, 죄책감과 분노, 우울, 부끄러움과 자책, 멸시 당함, 또는 짓눌림, 울분과 무력감, 혐오 등의 감정이 들어 있다. 비탄의 사건을 겪은 사람은 왜곡되고 뒤틀린 세계로 내던져진다. 사건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는 없다. 존재 자체를 부인해야 했던 수치심은 무의식에 통증으로 남는다.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들에게도 비탄은 있을 것이다. 조지 오웰(1903~1950)의 글에는 ‘정말, 정말 좋았지’라는 글이 있다. 이 글을 읽다보면 비탄에 빠지게 된다. 배우자를 잃은 상실감에 힘들어하던 40대 중반의 조지 오웰은, 9살 때 사건으로 자신을 데려가서 비탄의 역사를 썼다. 9살 아이의 사소한 실수가 평생의 수치가 되었다. 폭력이 한 어린 영혼을 어떻게 좌절시키는지 기록되어 있었다. 40대 중반의 조지 오웰은 왜 9살 사건을 썼을까? 그는 자기에 대해 쓸 때 수치를 말하지 않으면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주장을 했다. 우리는 기초가 흔들려 집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새 집을 짓기 시작한다. 인생의 커다란 위기에서 패배의 시선으로 자기를 돌아보며 글을 쓰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지 않을까.

자작나무 동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사건을 줄거리로 비탄을 썼다.

③ 수자타는 부처님의 깨달음 이야기에 등장하는 소녀이다. 어느 날 수자타가 염소를 끌고 길을 가는데, 한 수도승이 단식고행 끝에 쓰러져 있었다. 소녀는 한없는 연민의 마음을 내어서 부처님에게 단죽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대접했다. 부처님은 단죽으로 기력을 회복한 후, 깨달음은 고통이 아닌 기쁨에서 오지 않겠냐는 깨우침을 얻었다고 한다. 고통을 대면하며 삶을 정리하는 누구나의 인생에도 수자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자작나무 동무들에게도 단죽을 건넨 수자타가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장례식장에서 함께 울어준 사람들, 자폐가 있었던 어떤 아이, 아이돌 그룹, 어미개(새끼를 출산하고 정성스럽게 키웠던 개), 심리치료사(정신건강증진센터). 동무들에게 수자타가 다가와서는 단죽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울어도 괜찮아요. 속에 있는 것을 말해도 괜찮아요. 당신의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④ 곱스크는 단편소설 「곱스크로 가는 기차」를 읽고 쓰는 독후감이다. 곱스크는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깊게 갈망하게 된 세계를 상징한다. 방향도 없고 끝도 없는 열망과 아픈 좌절, 그러나 뒤돌아보면 현명했던 선

택과 정착(결혼, 직장 등). 고프스크를 번역한 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끌림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그때는 몰랐다. 고프스크로 가는 기차가 왜 그토록 절절하게 다가왔는지를. 돌이켜보면 고프스크는 내 삶의 은유였다. 아니, 누구의 인생이라도 삶은 고프스크와 비슷하리라. 그의 소설을 읽다보면 독자의 영혼 깊은 곳에서 제대로 위로를 받았다는 느낌이 밀려들 것이다.”(프리트 오르트만 2010, 186). 번역자는 그리스로 유학을 가서 고전문헌학자로 살고 싶었지만, 인생의 파고에 밀려 끝내 좌절했다.

고프스크를 품고 사는 사람은 고프스크로 가는 기차 소리가 들리면 마음에 통제하기 힘든 소요가 생긴다. 지금 그가 서 있는 자리를 객관적으로 보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 오히려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다. 안정되고 좋은 직장에 괜찮은 사람들 틈에서 지낸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인정하지 못한다. 현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채 삶의 주변부를 배회하면서 늘 ‘여기가 아닌 곳에서는 잘 살 것 같은 느낌’에 시달린다.

처음에는 고프스크를 좌절로만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고프스크를 쓰다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자각을 하게 된다.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다. “동무여, 그대가 원하는 것이 그대의 운명이고 그대의 운명은 그대가 원하는 것입니다.”

⑤ 심장사람은 아련함, 그를 향한 끝나지 않는 경외, 깊은 애착감과 교감, 연민의 상대이다. 누군가가 심장사람으로 박힌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그것을 정리해보자는 것이다. 이런 물음이 가능할 것 같다. “그대가 온 생애를 바쳐 사랑한 그는 누구인가.” 심장사람이 단 한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식을 낳기 전에 우리는 각자 누군가의 자식이었다. 자식에 대한 압도적인 사랑만큼 양육자에 대한 사랑도 압도적이다. 연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사랑도 압도적이다. 어느 사랑이 심장에 박혀 있을지는 잘 모른다. 어쩌면 나르키소스처럼 물에 비친 자기 자신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 심장에 박힌 사람이 없이 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언젠가, 아버지를 심장사람으로 품고 있는 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가족사를 불행하게 했던 아버지였지만 나에게에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는 아버지였다. 오토바이 뒤에 앉아 아버지와 달리던 시골길. 주말이면 아버지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던 유년의 풍경. 나중에 커서 동무는 주말이나 명절이면 의례히 친구들을 초대해 힘든 줄도 모른 채 ‘화려한 밥상’을 마련했다. 그 시간이 좋았지만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던 동무는 화려한 밥상의 역사를 썼다.

자작나무 동무들에게 심장사람을 묻기는 어려웠다.

⑥ 한 개인의 평온한 삶을 깨뜨리는 시대의 격랑이 있다.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개개인은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속수무책으로 떠밀려 간다. 식민지, 한국전쟁, 군사독재, 5·18 등 한국현대사의 분수령으로 기록되는 거대한 사건이 개인사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한국현대사-가족사-개인사는 장르별 구분 없이, 누군가에 의해 하나의 역사서술로 전개된다. 전라도 광주에 살던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기차를 타고 거의 매일 기차역에 갔다. 아이는 서울행 기차시간을 구구단처럼 술술 외었다. 엄마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워 사람들 앞에서 기차시간표를 외우게끔 했다. 아이는 어른들 칭찬에 우쭐해서 더 크게 기차시간을 말했다. 아이는 공부를 잘 해서 시험을 보면 항상 1등이었다. 그러나 10대의 방랑과 반항이 이어지고 30대가 되어서도 진정이 되지 않는다. 한 걸음 한 걸음 한국현대사의 격랑을 마주하고서야 가족사를 이해할 수 있었고, 가족사를 이해하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관점으로 자기 삶을 쓸 수 있었다.

복잡다단한 인생사를 담을 계열이 몇 개가 필요할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계열에서든 주인공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3) 나의 역사

나의 역사는 임상역사의 세 번째 쓰기이다. 연대기도 했고 산문도 했지

만, 기승전결이 있는 한 편의 이야기로 정리하는 것이 남았다. 구술이 서 말이어도 꺾어야 보배이다. 기승전결과 줄거리가 있는 하나의 이야기에 담는 시도가 필요했다. 임상역사에서 시도하는 것은 트리트먼트를 이용해서 쓰는 이야기이다(이영남 2018). 물론 이 형식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연대기를 늘려 쓰는 자서전 형식도 있고, 산문을 늘려 쓰는 자전적 에세이도 괜찮다. 이 둘은 특별히 글의 형식을 고민하지 않고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트리트먼트는 인류에게 보편적인 이야기 형식을 취하고 있어 시도해볼 직하나, 이야기를 구성하는 형식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어느 쪽이든 각자가 살아온 삶에 맞는 서술방법을 취하면 좋을 것이다. 자작나무 동무들은 자전적 에세이 형식으로 썼다.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① 별도의 장소에서 자작나무 동무들과 임상역사가의 1:1 대화가 있었다. 연대기와 산문을 토대로 주제와 줄거리를 얘기할 필요가 있었다. 무엇을 쓸지가 궁금했다. 정리된 생각은 정리된 생각대로,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면 정리하기 힘든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연대기는 일어난 순서대로 적는다는 점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던 동무들도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긴 글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 작업에서는 어려움을 느꼈다. 임상역사가로서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하고 그 의견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엄마와는 이런 얘기를 나눴다. ‘선생님이 아들을 대하는 태도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비슷해 보이는데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세 사람은 선생님 인생에서 결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서 써보면 어떨까요?’ 이것은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이었다. 돌아가진 아버지는 지금도 그림이지만, 먼저 보낸 아들을 이혼한 남편과 연결해서 쓴다는 것에, 동무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눈치였다. 어느 길가의 카페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마침 여름날 정오 무렵에 만나서 그랬는지 얘기가 끝났는데도 후덥지근했다.

딸을 먼저 보낸 엄마에게는 ‘그동안 딸이 준 선물이라는 말을 여러 번 썼

는데요, 딸의 죽음을 선물로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이 선물일 수 있을까. 이 극한의 반어법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러나 동무는 그것이 딸이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딸이 천국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은 아니겠냐는 희망을 낼 수 있었다. 마침 만나 얘기를 나눈 곳은 성당이었다.

딸을 먼저 보낸 또 다른 엄마에게는 편지를 소재로 얘기를 나눴다. 동무는 자살예방센터의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해 딸에게 보낸 편지를 쓴 일이 있었다. 그 편지가 인상적이었다. 그 편지에서 출발해서 여러 통의 편지를 써서 부치는 편지체로 딸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도 괜찮아 보였다. 성당에서 얘기를 나눴다.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와는 인생각본(life script :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갈 이야기를 써나간다는 교류분석 이론) 얘기를 나눴다. 아들을 먼저 보낸 후에 동무는 심리상담 봉사를 계속 했다. 동무는 특히 상처 입을 치유자라는 개념과 두 번째 각본의 중요성에 대해 이미 여러 번 강조했었다. 동무는 어렸을 적 형성되어 최근까지 삶을 지배한 첫 번째 인생각본을 먼저 정리한 후, 그 사건을 겪은 후 두 번째 각본을 힘겹게 다시 써내려갈 계획을 미리 가지고 있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동무는 문학적 능력이 뛰어났다. 동무도 다른 동무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자신은 매일 들어야 했던 천둥번개”(자살유족 에세이 모임 2013, 182)에 시달렸다. 그런데 동무는 천둥번개를 글로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써야 하느냐, 어떤 주제가 좋을까 하는 등의 얘기는 필요하지 않았다. 문제는 작문이 아니라 용기였다. 그 때는 배우자를 보낸 후 1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지난 10년의 천둥번개를 다시 꺼내 쓴다는 것에 대해 동무는 망설였다. ‘이미 심리상담에서, 자조 모임에서, 이런 저런 곳에서 천둥번개를 말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 그러면 된 것 아닌가. 왜 글로 다시 써야 하는가?’ 이런 갈등을 겪고 있었다. 왜 써야 하는지, 서로가 궁금했다. 직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한

동안 얘기를 나눴다. 여름날 무더위도 저녁 기운에 밀려 물러가는 기미를 보였다.

② 동무들은 그 다음 번 모임에 프로포절을 가져왔다. 프로포절을 가져 오지 못한 사람은 말로 구상을 전했다. 프로포절을 놓고 얘기를 시작했다. 이야기 방향과 내용, 폭을 같이 의논했다. 1:1 대화에서 나누지 못한 얘기가 많았다. 긴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 막막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여 얘기를 나누자 막막했던 것들이 조금은 가시었다. 용기를 낼 수도 있었다. “글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에게나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 티끌이 될지언정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만나야 할 무엇이 있다는 지극히 비과학적인 인간적인 감정의 이끌림과 모임을 함께 한 동무들의 감응력을 믿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자작나무 에세이 모임 2013, 209-210). 동무들을 의지하고 믿었기에 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쓸 수 있는 만큼은 쓸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③ 그리고는 쓰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자 윤곽이 드러났다. 스토리(시간적 순서에 따른 사건의 서술)가 있는 자전적 에세이의 글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사건에서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동무는 3년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10년이 지난 동무는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썼다. 모두 흡인력 있는 스토리였다. 단숨에 읽어 내려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아픔이 짙게 들어 있는 글이기에 읽은 후에는 한 동안은 말을 하기 힘들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살유족지원팀은 책으로 펴내자고 했었다. 책을 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살유족의 삶이 담겨져 있는 책자를 제작해서 고립감에 쌓여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유족에게 배포하여 자살유족으로서의 삶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라고 했다. 책이 나오면 경찰서에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은 타살을 의심하고 가까운 가족부터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유족은 서글프고 억울한 나머지 날카로운 돌멩이로 가격당하는 고통

을 다시 겪는다. 경찰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사 형사가 유족의 입장을 헤아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것은 국가(경찰)가 자살사건 생존자의 고통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그 바탕에서 고인을 욕되지 않게, 유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지 않게 조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우리 사회에는 자살을 문제가 있는 특수한 누군가의 문제로 국한해서 말함으로써 자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이야기가 있다. 또한, 자살시도를 했지만 어려움을 극복해서 현재는 잘 살고 있다는 자기노출식의 승리자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얘기는 자살을 의지가 약한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생긴 일인 것처럼 편견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자살을 그렇게 받아들이 수는 없다. 자작나무 책에는 편견을 깨는 이야기가 담겨야 했다. 고통을 대면한 후 자신에게 정직한 모습으로 찬찬히 쓴 자살유족의 이야기가 필요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정신과 전문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이야기를 하려면 기승전결이 있어야 하고 유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읽거나 듣고서 충분히 공감하여 자신의 상황에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성찰적이어야 한다. 자살뿐 아니라 사별 등 모든 상실에 적용할 수 있다면 처한 상황이 다를 뿐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서 적용할 수 있다. 보편적이어야 한다. 특수한 누군가에게 국한되었다는 것을 넘어 결국 다른 자살유족들의 치유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자살유족 에세이 모임 2014, 18-19).³⁾ 자살유족의

3) 자작나무 책은 2013년에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 비매품으로 발간해서 필요한 곳에 배포했다(제목: 『자작나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다섯 사람의 이야기』. 이 글에서는 ‘자작나무 에세이 모임 2013’으로 약칭했다). 공공기관이 발간한 간행물 형식의 책이었다. 그런데 의외로 반응이 괜찮자 센터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정식 출판을 하기로 했다. 내용을 조금 보완해서 2014년에 푸른역사 출판사에서 출판했다(제목: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네 사람의 이야기』. 이 글에서는 자작나무 에세이 모임 2014로 약칭했다). 두 권은 대부분의 내용이 같긴 하지만 차이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두 권을 별개의 책으로 간주해서 각각 2013년, 2014년으로 구분해서 표기했다.

이야기가 필요한데, 그 이야기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어야 하며, 성찰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한다. 동무들이 쓴 글을 모아 출판용 원고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주목했던 관점이었다.

원고를 다듬을 때는 동무들의 스토리에 플롯(논리적인 인과관계)을 넣어서 일정한 서사성을 넣으려고 했다. 더구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관성도 필요했다. 플롯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에게는 부당하게 닦친 운명에 저항하는 힘이 있다.” 부당한 운명에 저항하는 힘을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는 정의(justice)라고 했다. 기록하는 시간 내내 들었던 목소리는 정의의 목소리였다. 정의 플롯을 나침반으로 삼고, 다음과 같이 시퀀스(sequence, 이야기 순서)를 짜고 스토리를 배치했다.

* 사건의 발생(부당하게 닦친 운명) → 외면해도 소용없는 악화일로 (견디지만 강도가 세지는 고통의 순간들) →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사건과 삶의 다른 사건들의 연결. 그래서 사건에 대한 수용적 이해 (마치 누군가의 장례식장에서 그 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재회하듯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들이 출현해서 사건을 좀 더 상대화해서 바라보게 해준다) →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대면하고 회복해 가는 시간(운명에 저항하는 힘 : 운명아, 이젠 좀 심하잖니?) → 에필로그(삶의 의미를 짚어보는 글 : 짧은 단상, 어떤 결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등).

원고작업은 몇 번에 걸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보완되었다. 이후 출판 과정을 거쳐 책이 완성되었다. 이듬해인 2014년 3월에 책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은 책의 의미를 자기 입장에서 말해주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자작나무 에세이 모임을 대표해 한 동무가 마이크를 잡고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3년 반 전에 아들을 보냈다. 이제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

이게 되었다. 남은 생애 굳건히 살다가 저 생에서 아들을 만날 것이다. 아무리 비극적인 일이라도 자신이 직접 겪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 아내는 아직 책을 읽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엄마로서 아들 이야기를 도저히 읽을 수 없을 것이다. 딸아이는 다섯 번이나 읽었다고 한다. 딸아이가 내게 물었다. ‘아빠, 아빠가 쓴 글 진심이에요?’ 딸은 믿기 어려운가 보다. 평소 강하기만 하던 아버지가 무너지는 장면에서는 믿음을 갖기 어려운가 보다. 평소 강하다고만 생각하는 아버지에게 그런 연약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딸에게 이렇게라도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다행이다. 아들에게도 진작 무너졌다면, 연약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아버지의 의지에 연민의 마음이 느껴졌다.

책의 의미를 짚어보라는 주문을 받은 김운하 작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너무 이른 작별』(2012년, 남편을 먼저 보낸 미국의 여성이 쓴 책)을 번역할 때 너무도 힘들어서 어금니를 빼야 했다. 힘들었지만 번역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에게 아직 이런 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참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다. 글을 참 잘 썼다. 하나 같이 훌륭하다. 애도/치유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연대기, 또는 자기역사를 쓰는 것이다. 나도 작가로 데뷔할 때 그랬다. 습작기간에 ‘몇 트럭 분량’의 글을 써내면서 비로소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글을 써야 한다. 글을 잘 쓰느냐 여부는 부차적이다. 나는 책을 다 읽은 후 책장을 덮으면서 기회가 되면 유족과 장시간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다.”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말이, 장시간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는 인상적으로 들렸다. 그것은 아마도 자작나무 책은 장시간 대화를 나누며 쓴 책이었다는 점과 세상에 나가거든 진지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용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글 작업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4. 대화

1) 낭독

하나 둘 동무들이 모였다. 아직은 시작 전이라 동무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시작종이 울리자 오늘의 낭독자가 낭독의 무대로 옮겨갔다. 낭독의 무대는 둥근 테이블의 가운데에 마련되어 있었다. 그 곳에는 붉은색 계통의 따뜻한 색감과 부드러운 감촉이 있는 테이블보가 네 겹으로 접혀서 깔려 있었다. 노트북 2개 정도의 크기이다. 소박한 자리이지만, 무심하던 사람도 그 자리에 앉는 순간에는 직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갖게 된다.

이윽고 낭독이 시작되었다. 일체의 부연설명도 없이 낭독자는 자기만의 리듬과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읽다보면 잠시 호흡을 가다듬어야 할 때가 있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도 침묵의 공간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했다. 서글프게 울 때도 있었다. 어디에서 어떤 대목에서 우느냐 하는 것이지 낭독하는 동무들은 대체로 울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마음은 간절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 순간에는 슬퍼하는 동무를 가만히 지켜보며 기다렸다. 누구도 이런 저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 옆에 앉은 사람은 티슈를 건네고 등을 조금 두드리고 물을 건넸다. 마음이 조금 진정되면 다시 읽어 내려갔다. 그러나 어떤 문장 앞에서는 몇 번을 시도해도 막혔다. 쓸 수는 있지만 도저히 읽을 수 없는 문장이 있었다. 그럴 때는 도리 없이 진행자(임상역사가)가 대신 읽었다.

사람은 목소리를 내면 해부학적인 이유로 두 번 듣는다고 한다. 한 번은 몸 안에서 곧장 뇌로 올라가는 소리이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반사된 것을 귀로 받아 들여 듣는 소리이다. 녹음기에서 나오는 자기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몸 안에서 직접 듣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직접 듣는 소리는 내부에서 자기와 자기가 공명하는 소리이다. 내부의 공명은

낭독에 잘 어울린다. 낭독은 내부의 독자를 찾는 시간이다. 낭독의 순간에는 자기호흡을 느낄 수 있고 자기감정을 인지할 수 있다. 어쩌면 이 순간에 들어가기 위해 낭독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 시간에는 내부를 향한 목소리가 중요하다. 물론 외부로 향한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외부로 향한 목소리는 모임 중에는 들리았을 타자를 넘지는 않는다(외부로 향한 목소리도 필요하다. 다만, 낭독의 순간에는 아직 등장할 필요는 없다).

쓰는 이유는 낭독하기 위해서이다. 쓴다는 사실보다는 낭독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묵독은 이미 쓸 때 한다. 여럿이 교감하며 기록하기 위해서는 소리 내어 읽은 음독이 효과적이다. 물론 묵독이 이상할 것은 없다. 누구나 어디서든 책을 손에 잡으면 묵독을 한다. 묵독은 인류의 오랜 전통이다(오토 르트비히 2013; 이반 일리치 2016). 책은 한 손에 쥐어질 수 있고 내용적 가치도 풍부하며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래서 몇 사람이 모여 앉아도 각자의 세계에서 묵독할 수 있다. 어느 금요일 밤 펼쳐지는 묵독의 풍경을 예로 들어본다. 5일의 고단함이 끝나는 금요일 밤, 시내의 조그만 서점에 사람들이 모여 들자 잔잔한 음악과 커피의 향, 와인 냄새가 실내에 퍼졌다. 사람들은 갑자기 천국의 입구에 다다른 듯 밝게 기지개를 켜며 평온해졌다. 각자 편안한 자세로 앉아 묵독의 세계로 빠져 들었다. 괜찮은 금요일 밤이 깊어갔다. 책은 묵독을 위한 좋은 기록이다(꼭 묵독만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쓰는 것이 중요하고, 쓰는 과정에서 치유 효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효과 등 여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쓰는 사람이라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연주자가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는 것처럼, 낭독의 시선으로 쓰기를 보면 다른 점도 보인다. 어떤 연극연출가는 자신이 직접 쓴 대본을 배우들이 읽는 것을 보고서야, 그리고 배우들이 말하고 연기하는 것을 보고서야 자기가 무엇을 썼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기록작업을 같이 하는 동무들 앞에서 자신이 쓴 것을 낭독하면서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썼는지 알 수 있다. 쓸 때는 모르는 것이 있다. 그것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고, 쓸 때만큼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자신에게 진실한 것은 낭독하는 순간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다. 낭독을 하면서 정서적인 것들이 활동하고 그것이 쓸 때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출현시킨다. 낭독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직감할 수 있다.

왜 쓰는가? 기록작업을 같이 하는 동무들 앞에서 낭독하기(공연하기) 위해서 쓴다. 낭독을 시작하면 세상의 명징한 것들은 서서히 자취를 감춘다. 명징한 것들의 뒤쪽에서 다가오는 누군가가 있다. 내부로부터 나온 그 사람이 가만히 다가와 묻는다. “나는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되었으며 지금의 나로 산다는 것이 어째 이리도 간단치 않단 말인가.” 이 질문은 자기의 역사적 형성을 탐구하는 질문이다. 1인칭으로 자기를 기록하는 시간에는 필요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낭독을 계기로 내면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2) 듣기

동무들은 한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 뭐라 토 달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어 질문하지 않고, 중간에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거나 하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입은 다문 채, 누군가 목 앞에 칼을 들이대고 있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찬찬히 들었다. 그런 모습에서 숭고함이 느껴졌다. 무엇을 듣는 것일까. 이런 궁금함도 들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이 하는 말의 대부분은 상대방에게 직접 건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상대방이 직접 건넨 때 들을 수 있었다. 눈길을 마주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직접 건네는 말은 줄어들고 있다. 반면 미디어를 통해 듣는 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메일, 문자, 트위터, 채팅이 성행하면서는 서로 육성으로 주고받는 말은 더 줄어들었다.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은 그 나름의 역할을 하면서 많아지는 줄 안다. 상대의 호흡을 느끼며 육성을 진지하게 청해 듣는 순간이 축소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자작나무 동무들은 낭독하는 소리를 건네받았다.

어쩌면 듣는다고 말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겠다. 발표문(출력물)을 보며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면서 따라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묵독이라 해야 할 것 같다. 늦은 밤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육성만 듣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순전한 듣기의 세계가 갖는 장점도 있고 읽기와 듣기가 병행하는 세계가 갖는 장점도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한 사람이 낭독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묵독하는 경우, 모든 사람이 동시에 낭독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병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문자에 익숙하고 사실적 대화를 선호하는 사람들과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10~20쪽 분량의 글, 때로는 30쪽 이상의 글을 몇 십 분 동안 귀로 가만히 듣는다는 것이 성인들에게는 엄청난 인내를 요하는 일이다. 집중력이 약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결국 발표자는 워드로 작성한 글을 출력해서 배포한 후 낭독한다. 다만, 낭독자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단지 낭독만 한다는 요소가 있어서, 이런 풍경도 듣기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풍경이라 생각한다.

듣는 것은 함께 읽는 것이다. 왜 함께 읽어야 할까? 더구나 고통의 목소리이지 않은가. “동무여, 그대는 들어서 즐겁지 않은 것을 왜 사랑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군요. 왜 괴로움을 주는 것을 기꺼이 듣겠다는 겁니까? 혼자 떨어져 나와 감내하는 그대여, 그대는 어느 순간 하나의 현이 다른 현의 고운 짝이 되어 질서 속에서 조화로운 소리를 내는군요. 말 없는 노래는 여럿이지만 하나의 목소리로 집결해서 그대에게 파고 듭니다. ‘혼자서는 아무런 보람도 없다’고.”(셰익스피어 〈소네트〉 8번을 조금 고쳐 씀). 효율적 정서가 지배하는 목표지향 사회, 그리고 입시학원의 일목요연한 강의 스타일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왜 함께 읽는가를 물어본다.

함께 읽는 것은 삶에 필요한 특별한 경험이다. “교재를 낭독하고 전체가 조용히 함께 듣고 있는 교실 풍경은 공감 공간의 어떤 절정입니다. 여러분

도 적막한 교실의 경험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사각사각 연필만 들리는 적막한 교실의 경험, 대단히 특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읽는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신영복 2015, 16). 배움은 지식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읽기는 누군가의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 특별한 경험을 위한 기록법이다. 아카이브의 기술(description)이 기록물을 가치 있게 만드는 특별한 기록법인 것처럼. 인간에게는 함께 머물며 무언가를 했다는 느낌이 주는 특별함이 있다. 단순한 구경꾼은 얻을 수 없는 느낌이다.

함께 읽는 것은 공유하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단어에, 낭독하는 표정이나 몸짓에, 목소리의 톤과 결에, 어떤 독특한 목소리에, 음악에 장단을 맞추듯 동조하면서 들었다. 듣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서적 맥락을 한 겹 더 짜는 효과를 낸다.”(이영남 2018, 185-186). 함께 읽으며 무언가를 공유한다는 것은 두텁게 막을 찢는 것을 말한다. 아카이브에서 기록물을 정리하고 기술하는 이유는 물리적, 지적 통제를 위해서이다. 마찬가지로 아닐까 한다. 누군가가 사건을 통제하기 위해 다시 기록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듣는다는 것은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인이 되어 함께 읽는다는 것은, 그들이 공유하는 그 사건에 신뢰의 막을 찢는 작업이다. 맨손으로 잡을 수 없는 밤송이에 커버를 씌우듯이, 이런 순간은 직면하기 어려웠던 사건을 마주하며 비로소 통제를 시도하는 순간이다. 역사적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듣기는 상대방의 세계로 입장해서 그 사람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불어에서 듣기는 ‘양탕드르(entendre)’이다. 듣다, 들리다, 귀를 기울이다, (상호적으로) 서로 목소리를 듣다, (재귀적으로) 자기가 하는 말의 뜻을 알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일상적으로는 부모가 아이에게 ‘알아들었어? 알았니?’라고 확인할 때나 상사가 부하에게 지시하면서 ‘충분히 알아들었지?’라고 할 때 양탕드르라고 한다. 듣기란 요컨대 ‘알다, 이해한다’는 뜻이다(다치바나 다카시 외 2007, 55). 이런 맥락에서 논의를 이어가면, 자발적 듣기는 상대방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도일 것

같다. “상대방에 대해 배운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귀 기울여 듣는 것의 최대 장점이다.”(더글러스 스톤 외 2003, 233). 지식이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배움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삶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배운다는 것은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가 될 수 없다. 그것은 관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배움은 상대의 세계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유하는 세계에서 관계형성을 시도하는 것이다. 더 많은 것을 공유할수록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며, 더 배울수록 더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절박한 과제이다. 배우자의 은유로 신뢰관계 형성에 대해 말해본다. 결혼한 상대방을 우리는 배우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배(配)는 술이 익어가듯이 자신을 숙성시킨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신뢰관계는 상대를 배우자로 받아들이는 관계이다. 상대를 배우자로 받아들이고, 내가 상대의 배우자가 된다는 것을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두 사람이 서로의 세계를 더 많이 공유하고, (각자의 방식과 경로는 다르겠지만) 존중하면서(인정하고 지지하면서) 세월을 보내며 서로 성숙해가는 것이다. 기록도 우리 사회의 이런 당면과제에 참여해야 할 것 같다.

다른 한편, 가만히 듣는 것은 배움이기에 더 놀라운 장점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상대방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더글러스 스톤 외 2003, 233). 인간은 모방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대를 모방하며 관계형성을 시도한다. 듣기는 배움의 상호작용이자 상장(相長)의 관계이다.

듣기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① 듣기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그것은 좌절과 실패의 세계이다. 성공한 삶은 이력서에 적어 넣을 수 있다. 성공한 삶은 좌절과 실패조차도 성공의 드라마틱한 요소로 삼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좌절은 좌절이고 실패는 실패이다. 더 이상은 없다. 여기가 종결점이다. 좌절은 좌절이고 실패는 실패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으로 슬퍼하지 않고 말로 슬

퍼한다는 것이다. 생각으로만 슬퍼하고 있다는 것은 혼자 있음을 의미하며 말로 슬퍼한다는 것은 들어줄 상대가 있음을 의미한다.”(자작나무 에세이 모임 2014, 12). 이 시간은 이력서를 늘려 쓰는 시간은 아니다. 자신이 실패와 좌절로 분류해 놓은 채 아직 정리하지 않은 삶에 대해 말하는 시간이다. 그런 삶을 기록과 연결하려면 강한 어조의 말하기보다는 찬찬한 듣기가 필요하다. 삶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을 터놓고 말을 하려면 귀 기울여 듣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이영남 2018, 176). 실패한 삶을 기록하는 시간에는 듣기가 필수적이다.

②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의 정서는 에로스(인간적인 따뜻함과 보살핌, 친밀함과 애착, ‘팔랑개비 귀’)이다. 에로스는 심리적으로는 생의 에너지로 예술의 지향점이다(김형경 2006). 한편, 대화를 나누는 곳에서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보살핌이다(John A. Stanford 1994).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친밀함과 애착, 그리고 팔랑개비 귀를 덧붙여 기록의 정서로 에로스를 상정해보았다. 듣기는 상대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려는 의지이다. 에로스는 서로를 왕래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에로스는 팔랑개비 귀로 듣기 때문에 상대를 의심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인다.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각자는 서로의 세계를 왕래하면서 결속해가는 공동체가 된다. 각자가 서로 다른 관점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각자의 차이는 보존되면서 공통적으로 추구할 가치가 강화된다. 삶을 위한 기록의 정서는 에로스이다. 조직의 기록관리가 추구하는 정서가 효율이라고 한다고 해서, 다른 영역에서도 이런 기록의 정서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만이 전부인가,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 에로스는 기록이 추구할 정서 중 하나이다.

③ 함께 듣기에서 나오는 정서적 역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록작업은 10명이 모여 앉아 함께 작업했다. 이것은 모내기와 유사한 면

이 있다. 이런 인적 구성이 주는 미덕은 〈함께 듣기〉를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신분석이나 심리상담은 혼자 듣는다. 전문가의 심도 있는 분석이 이런 경우는 미덕일 것이다. 이에 반해 함께 듣기는 기록공간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게 해준다. 아카이브는 제품판매업(기록물 제공)이 아니라 백화점 같은 일종의 공간임대업이 된다. 백화점은 다양한 판매자에게 공간을 임대해서 한 곳에 모은다. 삶을 위한 기록공간에는 여러 개의 팔랑개비 귀를 한 공간에 모이게 해야 한다. 아카이브는 공유공간을 만들고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함께 듣기는 여럿이 모여 함께 듣는 것이다. 전문적 훈련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연애 같은 특별한 관계가 아닌 경우라면, 한 사람이 듣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듣는 것이 반향이 크다.

듣기가 없으면 낭독도 없고, 낭독이 없으면 글도 없다. 듣기는 논리의 출발점이고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3) 얘기

아프리카에는 거인의 엉덩방아가 호수를 만들었다는 신화가 있다. 먼 옛날 하늘에서 내려온 거인이 성큼성큼 걷다가 ‘쿵’ 주저앉자 거기에 커다란 웅덩이가 생겼다. 얼마 후 거인은 일어나 다시 걷다가 또 쿵 주저앉아 커다란 웅덩이를 만들어 나갔다. 얼마 후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방향 없이 주변을 흐르던 지천들이 웅덩이로 흘러들어갔다. 생명이 자라면서 호수는 그 나뭇의 고유한 생태계를 가진 세계가 되었다. ‘쿵! 누구나 이런 정서적 무너짐(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을 살면서 경험한다. 삶은 이런 정서적 웅덩이로 구성된다는 가설을 가지고, 낭독이 ‘쿵!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가설을 덧붙여, 낭독 후에 이어지는 환담을 말해본다.

낭독이 끝나자 얘거나 좀 나누자는 식의 분위기가 생겼다. 낭독하는 것도 듣는 것도 여유만만은 아니었다. 실패와 좌절을 때로는 부끄러움과 서

려움으로 읽는 것은, 그것을 바로 앞에서 육성으로 전해 듣는 것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더구나 자작나무 동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장면을 말해야 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보냈던 시간을 말해야 했다. 어려운 일이었고 긴장도가 높았다. 그러나 낭독이 끝나자 이상하게도 홀가분한 마음이 찾아왔다. 심각한 분위기는 느슨해지면서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낭독자도 그 때어야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환담의 분위기에서 찾아온 슬픔은 얘기해볼 만 했다.

동무들의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

- 공감 한 줄에 대해, 무엇이 특히 인상적이었는지 대해.
- 그가 마주했던 고통과 슬픔에 대해 연민의 눈빛을 보이면서, 또는 실패와 좌절에 대해,
- 그 사람 인생의 빛나는 사건에 대해.
-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같은지에 대해,
- 그 사람 인생에 출현한 사람들 중에서 누가 비중이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 그가 누구에게 애착과 친밀함을 갖고 살았는지에 대해.
- 그리고 밑줄을 긋고 별표를 쳤던 단어와 문장을 말하면서 사건의 세부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것과 더 듣고 싶은 것에 대해.
- 자기 인생의 무엇을 건드렸는지에 대해서도.
- 가만히 듣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보는 것과 같은데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
-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느낀 바에 대해
- 웬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며 다소 엉뚱해서 맥락이 좀 닿지 않아 보이는 것에 대해.

공감, 맞장구, 소감, 질문이 특별한 질서와 순서 없이 출현했다. 100분 토론처럼 사회자가 따로 있어서 순서와 의제를 정해주는 것도 아니었다. 인간은 평생에 걸쳐 얘기를 나누며 살아왔기에 언제 어떻게 자기 차례를 잡

아서 말해야 할지 본능적으로 안다. 동무들은 그런 자연스런 본능에 충실해서 얘기를 나눴다. 어차피 자유로운 분위기인지라 긴 시간 돌아가면서 기탄없이 얘기를 나누는 풍경이었다.

몇 시간이고 시간가는 줄 모른 채 한 바퀴 돌고나면 십시일반으로 커진 뭔가가 잡힌다.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저녁이 들어오는 시간이면 논 한가득 푸른 색깔이 나는 모내기 풍경과 비슷하다. 시작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끝날 때쯤이면 확실히 뭔가가 내면에서 꿈틀하는 느낌이 든다. 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당장은 알기 어렵다.

4) 대화

〈글 → 낭독 → 듣기 → 얘기〉는 대화를 나누는 의례이다. 작가는 고유한 문체(style)로 작업을 한다. 이것을 좀 흉내 내어 본다면, 임상역사의 문체는 대화이다. 낭독하고 듣고 얘기를 나누는 것은 멀리서보면 한가하게 노닥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화체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면 진지해진다.

대화는 무엇일까. 역사는 논쟁의 언어를 쓴다. 역사적 사실을 실증적으로 구성하는 한편, 시비판단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역사서술을 할 때는 쟁점을 잡아서 논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서술한다. 공공기록관리도 마찬가지이다. 기록물을 다룰 때, 기록관리직이 기록관리 문제를 두고 적법성을 따질 때, 조직 내에서 기록관리를 말해야 할 때, 조직과 국민 사이에서 이해관계와 갈등을 중재해야 할 때 기록관리의 언어는 논쟁적이다. 당면한 현실을 내세울수록 논쟁의 언어는 강화된다. 논쟁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논쟁은 필요하지만, 기록언어의 전부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기록언어의 가능성을 대화에서 찾아본다.

대화는 논쟁과는 다른 계열의 언어이다. 대화와 논쟁을 구분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논쟁과 대화

논쟁	대화
자기 관점을 부각시키고 상대 관점을 폄하 * 상대를 이기는 것이 목적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은 유보 * 상대를 배우는 것이 목적
상대의 주장에서 결함을 찾기 위해 듣는다	경험이 그 사람 신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듣는다
상대의 경험이 왜곡/타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상대의 경험이 진실 되며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자기 의견을 고수하려는 강한 의지	자신의 이해를 넓히려는 태도
상대의 동기와 입장에 대한 추측을 바탕으로 말함	주로 자신이 이해한 것과 경험을 바탕으로 말함
참여자들은 서로 반대 입장을 취한다 상대가 옳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참여자들은 공통의 이해를 위해 협력한다
상대방이 겁을 먹게끔 분노와 같은 격한 감정을 사용한다	경험이나 믿음의 강렬함을 전달하기 위해 분노와 슬픔과 같은 격한 감정을 사용한다

※출처 : 리샤 서크, 『공동체를 세우는 대화 기술』, 2014.

대화와 논쟁은 정서가 다르다. 첫째, 논쟁의 정서는 효율인데 반해 대화의 정서는 예로스이다. 둘째, 출현하는 말이 다르다. 논쟁에서 상대의 언어는 반박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언어를 강화하는 식으로 상대를 공략한다. 논쟁을 할 때는 각자 자기세계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강화한다. 반면, 대화는 상대의 언어를 수용해서 이를 사용한다. 상대를 수용하려면 상대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대화는 천천히 상대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분을 쌓는 시간이다. 셋째, 양자는 목적하는 바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다. 논쟁의 목적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반면, 대화의 목적은 상대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갈등을 관리하는 건강한 논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에 필요한 논쟁문화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해야 할 것 같다).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은 윤리적 충동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이런 윤리적 질문이 있어야 배움이

가능해진다. 상대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를 가르치려 할 뿐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럴 때 상대는 무가치하고 한심한 대상이 된다. 누구나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거나 상대가 나를 공격하는 태도를 보이면 논쟁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배움은 윤리적 상황에 직면하는 것, 모르는 것에 질문을 던지고 삶을 탐구하는 것, 그 동안 자신을 지배했던 가치에 의심을 품고 타인의 삶으로 걸어가는 것, 혼자서 사색하기보다는 타인의 삶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배움은 상대가 누구이든 그 사람을 동무(대등한 관계)로 삼을 때 가능하다.

대화는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화하는 사람은 자신의 관점은 유보한 후, 그 사람이 말하는 경험이고 그 사람의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듣는다. 대화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경험을 존중하고 습득할 수 있다. 기록의 관점에서 임상은 대화를 나누며 삶을 기록하는 시간이다. 자신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 필요한 조건은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타인이 살아온 시간에서 자신을 상대화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타인을 이해하는 첩경이기도 할 것 같다. 이런 상보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화(듣기)를 광합성의 은유로 이해하면 타인과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나무는 완벽한 수동성으로 햇빛을 받는다. 나무는 필사적으로 햇빛을 향해 잎사귀를 내는 한편, 뿌리에서는 물을 끌어 올린다. 나무는 햇빛과 물을 섞어서 광합성 작용을 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생각이다.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내적으로 뿌리를 내리며 자기 삶에서 무언가를 길어 올린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와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필요하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타인과 관계이다. 인간은 타인의 호소와 요구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겪는 것들(사건, 마주침, 대면, 접촉)이 삶을 자극할 때 여기에 적응하며 산다(알폰소 링기스 2013). 그 간(10년)의 경험적 사실을 말하자면, 사람은 타인에게서 온 것과 자신에게서 온 것을 섞어서 무언가 자기 삶에 필요

한 것을 만드는 관계적 존재이다.

한 인류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원시의 삶은 지금과 별반 사는 것이 다르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자들은 떼 지어 사냥을 나가고 여자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채소와 과일을 찾아 나섰다. 아이들은 남고 노인들도 남았다. 저녁이 들어올 때쯤 공동체 구성원들은 주거지 한 가운데에 있는 공동 취사 구역으로 모였다. 모닥불이 타고 있는 그 곳에서 그들은 고기를 굽고, 고기와 야채를 섞어서 요리를 하고, 과일을 나눠 먹었다. 그런데 침묵의 식탁은 아니었다. 그들의 입은 먹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면서 바빴다. 그들은 너나없이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그 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이는 사실은 젖으면서도 자기가 오늘 친구와 싸워서 이겼다는 무용담을 말하고, 할머니는 사실은 아이에게 짜증을 냈으면서도 아이를 정성껏 돌보았다고 말하고, 남자는 사실은 너무 두려워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으면서도 사자를 만났으나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의시대고, 여자는 사실은 정신없이 일했으면서도 간간히 보았던 하늘이 높았으며 바람은 시원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각색하고 때로는 심한 과장법을 넣어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었다(마저리 쇼스타크 2008).

기록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저녁식탁 자리는 밥을 먹는 자리이기보다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할 이야기-역사를 만들고 나누는 자리였다. 인류는 태곳적 기록형식인 이야기로 그 날의 일을 기록했다. 인간에게 최초의 기록형식인 대화체 역사는 이런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기록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다. 한 번도 이용된 적이 없는 기록이 과연 기록일 수 있을까? 아카이브의 보존서고에는 이런 보존기록이 많다. 기록의 의미는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누며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 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누며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은 밥과 기록으로 타인에게 곁을 주면서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다. 사랑을 이야기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했다. 아이들에게 읽히는 대부분의 동화는 이런 윤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동체는 대화

체 기록이라는 문화적 유전자로 살아왔다. 호모 사피엔스가 공동체와 언어(대화체 기록)를 결집시키던 그날 저녁은 여전한 매일 저녁일 것 같다.

어느 새 밤이 깊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다. 자작나무 동무들은 모임을 파하고는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의 시간만큼이나 길었던 대화를 나누다가 돌아간 그 날 밤은 무엇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밤길이 이상하게 고독하다.

5. 인생의 아름다운 한 때

사람들과 일상이 오가는 어떤 거리에 〈화양연화〉 상호를 단 가게가 있었다. 간단한 술과 음식, 커피, 간단한 모임, 20~30명 규모의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옆집은 꽃집이었다. 당시 유행하던 카페와 꽃집을 겸했다. 꽃집 덕분에 거리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퍼졌다. 그 앞에는 쿠키 집과 봉어빵에 아이스크림을 넣어 파는 가게가 있었고, 흑백으로 초상화를 찍는 사진점도 있었다. 사진점 덕분에 이 거리의 가게에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전장 사진이 문패처럼 문에 걸려 있었다.

화양연화의 문이 열리자 ‘한쪽 어깨에 무거운 돌덩이를 짊어진 슬픈 운명’의 시시포스가 한 사람씩 들어왔다. 뒤이어 초대 받은 사람들이 손에 꽃을 들고는 상기된 얼굴로 들어왔다. 2명으로 구성된 단출한 음악 밴드와 행사 관계자들이 초대한 사람들도 유쾌한 표정과 긴장된 표정을 번갈아 지으며 들어왔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입장하자 시시포스는 한 사람씩 돌덩이를 내려놓았다. 그렇게 다섯 개의 돌덩이가 한 군데 모여 커다란 탁자가 생기자, 시시포스 다섯 명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자, 이리로 와서 앉아요.”

알베르 까뮈(1913~1960)의 작품 세 편(적지와 왕국/시시포스 신화/페스트)을 이용해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의 아름다운 한때’) 풍경을 만들어 보았다. 시시포스는 슬픈 운명을 짊어진 존재이다. 그는 무거운 돌덩이를

깊어진 채 언덕을 올랐다가 돌맹이가 언덕 내려가 굴러 떨어지면 다시 내려가 깊어지고 올라와야 하는 시간 안에서 산다. 꽤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돌맹이를 넣고 산다(돌맹이는 각자의 사연과 고통으로 구성된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각자의 영역에서 시시포스처럼 영원히 반복될 것 같은 운명을 짊어진 채 산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고통의 신화를 짊어진 슬픈 운명의 시시포스는 저주나 허무로 이해된다. 그러나 아닐 것 같다. 꼭 그렇게만 봐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것이다. 다른 해석을 넣어 다른 이야기로 변형할 수 있다면 시시포스의 시간이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다른 계열의 이야기는 고개를 돌려 다음과 같이 물을 때 시작된다. 〈운명아, 이걸 좀 심하잖니?〉 이때부터 시시포스는 정의의 목소리를 내면서 고통의 신화를 변형해 다른 계열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까뮈의 시시포스는 혼자서 돌맹이를 짊어지지 않았다. 릴레이를 하듯이 두 사람이 돌맹이를 짊어지고 길을 걸었다. 그러다 사람들이 사는 집에 이르면 불가에 돌맹이를 내려놓고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자, 이리로 와서 앉아.”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한때를 향유했다. 돌맹이가 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돌맹이는 자랄수록 가벼워진다. 돌맹이는 타인의 체취와 이야기로 조금씩 자란다. 고통을 기록하는 시간에는 이런 희망이 필요하다. 희망이 없이는 고통을 여러 사람과 나눌지면서 대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시포스 이야기는 3막으로 구성된다. 1막은 만남과 연대기, 2막은 여행과 산문, 3막은 나의 역사와 화양연화이다. 3막 2장은 그 동안 쓴 이야기를 상영하는 자리이다. 취지는 이렇다. 필름은 최종 편집이 끝나도 상영관에 걸리지 않으면 영화가 될 수 없다. 사람들과 영화를 보기 위해 필름을 만드는 것인데도 만약 상영관에 걸리지 않고 필름보관소의 서늘한 서고에 보관되기만 한다면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필름보관소의 공간을 채우기 위한 필름을 제작하자는 것이지 영화를 만들자고 작업

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선언을 할 수는 없다. 필름보관소에 가기 전에 영화관에 먼저 가야 한다.

3막 1장까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했다. 이때까지는 안전한 기록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막 2장에서는 공개로 전환된다. 동무들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초청한다. 연인과 배우자, 자식과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와 직업 동료, 활동가, 심리상담사와 사회복지사, 교사와 목회자 등이 초대를 받았다. 화양연화는 기록의 무대에 돌멩이를 들고 오르는 동무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시간이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증언자가 된다. 사람들이 공인하는 의례가 있어 ‘개인의 사적인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적 서사’로 변형될 수 있다. 꽃을 들고 무대에 올라 공개발언을 하는 의례는 고문피해자들이 시작했다. 연민과 우애의 마음으로 전해진 꽃과 환한 표정이 주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고통을 겪어온 사람들은 수치심을 뒤로 하고 무대에 오르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자작나무 동무들도 초청자 명단을 만들었다. 이후 서울지사살예방센터(자살유족지원팀)는 초청장 발송, 무대 마련, 기타 행사준비를 도맡았다. 자살유족지원팀 외에도 센터의 다른 직원들도 참석해서 자리를 지켰다. 이제 한 사람씩 기록의 무대에 올랐다. 꽃다발을 받고 사진을 찍었다. 이윽고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낭독을 시작했다. 물론 듣기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가는 얘기 대신에 따뜻한 피드백이 뒤따랐다(시간관계 상). 각자가 초대했기에 낭독자도 모인 사람들도 초면이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피드백이 나왔다. 초청을 받고 온 한 심리치료사는 고통을 지닌 사람일수록 가볍고 뻔뻔해야 한다는 인상적인 피드백을 했다. 그이는 10대 학생들에게 ‘가편’이라고 불린다고 했다. 서 너 시간이 흘렀다. 시시포스도 가볍고 뻔뻔하게 아픈 운명을 말했다. 눈빛과 눈빛이 교환되었고 소리와 소리가 공명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목소리로 자작나무 기록의 증언자가 되어 주었다. 다섯 명의 공연이 끝났다.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가는 행인들이 창문 저편으로 보였다. 조금은 홀가분한 자리였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엔딩 크레딧이 오르기 시작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당신 품으로 돌아간 아이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주님 곁에서 성모의 보살핌으로 아이는 따뜻한 빛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빛나는 별이 되어 제 맘속에서 따뜻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저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꾸 눈물이 납니다. 저도 어찌할 수 없는 상실감에 괴롭고 슬퍼 심통이 나고 뻘뻘해지고만 싶습니다. 주님, 아이와 함께 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때마다 후회와 안타까움이 가슴을 후립니다. 태어나던 날부터 하늘로 갈 때까지 16년 동안 딸을 내 소유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떠난 후 한동안 저희 가정은 폭풍 전야가 되었습니다. 고요하다가도 부부가 부딪치기만 하면 사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남은 우리 가족 세 명은, 아직은 서먹서먹해하면서도 서로 걱정합니다. 어정쩡하게 지내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시원하게 속내를 털어내고 대화를 못합니다. 같이 울어 보고 싶은데 서로 우는 모습을 안 보여 줘요. 아마도 무너져 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그럴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언젠가부터 제 성격도 변하는 것 같고 삶의 자세도 바뀌고 있습니다. 내 딸이, 아니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 아이가 저기 저 별나라에서 제게 보내준 선물인 것만 같아서 마음이 금세 따뜻해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 당신이 아이를 지켜 주시듯이 저 또한 지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에필로그가 필요한 자리에 천국의 문을 노크하는 기도문을 배치했다. 딸을 먼저 보낸 엄마는 처음 100일 동안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그 이후에도 긴 시간 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 어느 날 딸이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매일 기도해줘서 나는 잘 지내. 나를 위한 기도문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도 나눠주면 좋겠어.” 엔딩 크레딧으로 올린 기도문의 제목은 ‘딸을 위한 기도’(자작나무 에세이 모임 2013, 46-49를 요약함)이다.

천국에도 정원이 있다고 믿는다. 정원의 가장자리는 회향(茴香, fennel)이 지키고 있을 것이다. 회향은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이고 특유의 마른 풀냄새를 풍기는 허브이다. 정원사들은 회향을 정원의 가장자리에 심는다고 한다. 그것은 회향이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해로운 곤충은 막고 이로운 곤충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회향의 씨앗은 빵에 넣어 먹어도 맛있다. 회향은 약초로도 쓰인다. 회향은 버릴 것이 없는 좋은 허브이다. 우리 삶의 회향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지 않을까.

시멘트 바닥에 비 내리는 냄새에서 시작된 기록작업은 회향 특유의 건조 냄새로 끝이 났다.

6. 일상의 기록생산과 일상적 아카이브

1) 일상의 기록생산

조직(특히 공공기록관리법에 등장하는 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생산에 대한 논의는 많은 편이다. 국가기록혁신도 여기에 하나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논의를 하면서 기록이란 무엇인가, 어디까지가 기록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기록의 정의와 기록관리 방법론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직의 업무효율을 높인다는 말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기록을 연결하는 시도를 한다. 이를 위해 국제표준도 참조하고, 외국의 뛰어난 연구자들의 논의도 참조한다. 상당한 예산을 들인 연구용역사업도 많다. 이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 말고는 다른 논의는 없을까?

조직이 아닌 일상에서도 기록은 생산된다. 기록생산 논의를 일상의 울타리에서 따로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 글은 기록이란 실체적으로 제시되는 것보다는 미시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입장에 서 있다. 기록이 던져진 상황에서 기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기록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구성된다. 실체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조직의 기록과 일상의 기록은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단지 상황적 변수만 달라질 뿐이다. 반면, 구성적 관점으로 접근하면 전자와 후자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같은 점은 어떤 점에서 같은 것인지, 다른 점은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인지를 관찰하고 논의할 수 있다. 이럴 경우의 장점은, 보다 균형 있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록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관찰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면서 기록의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의 기록생산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조직의 바깥으로 기록의 시선을 넓혀야 한다. 현재 당연하게 규정된 기록의 실체성에 의문을 품고 근원적으로 기록을 다시 구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요리학원에서 요리법을 강의하는 것과 그 요리전문가가 어떤 집에 초대되어 그 집의 저녁밥을 그 집 식구들과 같이 짓는 것은 다를 것이다. 정서적 느낌, 사용하는 언어, 눈을 마주치는 각도, 관계 맺는 방식, 음식을 요리하는 이유, 밥상에서 나누는 대화 등은 다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닐까 한다. 기록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 특히 자신을 아키비스트로 이해하는 사람이 일상에 들어가 기록생산에 합류할 수 있다면 무엇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일상적 모임은 모여 앉은 몇 사람이 서로의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친밀한 곳이다. 그런 일상적 모임에 들어가서, 기록을 고민하는 사람들(기록생산자)과 같이 기록 이전에 삶을 고민하면서 기록을 그 맥락에 맞게 구성하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면, 아키비스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때 기록이란 무엇이며 기록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까? 일상의 기록생산을 말하려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일상에서 기록이 구성되는 방식은 다르다.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기록 이전에 인간에 대해, 삶에 대해 먼저 얘기를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상의 기록생산에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감각, 정서, 생각, 언어가 중요하다. 또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인지, 기록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중요하다. 이런 기록구성 요소들은 조직의 기록관리에서는 불필요한 요소일 수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이런 인간적 사실들을 배제하고는 기록을 구성할 수는 없다. ‘인간과 기록의 상관성’(또는 서로를 상관적으로 구성하는 힘) 안에서 기록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직의 기록생산과 일상의 기록생산은 구성방식, 기록의 생산순서와 리듬, 지향이나 가치가 같을 수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간다면, 서로를 배척하는 모순을 발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조직에서 요구되는 기록의 정의와 기록관리 방법론을 일상으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오히려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이 사이에는 레테(망각의 강)가 흘러야 할지도 모르겠다. 일상의 기록생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조직(특히 근대의 국민국가가 조직)의 기록관리보다 더 장구한 기록의 전통을 읽어야 한다. 인간은 기록과 함께 진화한 생명체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이야기 하면서, 자신이 어떤 생명체인지 상상하고, 이 상상의 힘으로 자신을 독특한 생명체로 구성하며 살아왔다. 일상의 기록생산을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이해보다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

1999년 이후 발전하고 있는 기록관리 분야에서 일상의 기록생산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물론 ‘민간 영역에서’ 이미 생산된 기록물을 수집해서 관리하는 기록관리 방법론에 대한 모색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 기록이 생산되는 시간, 기록을 생산하는 ‘일시적 기록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시도, 일상에서 기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천착에 관한 논의는 적은 편이다. 물론 일상의 기록생산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적 사실을 말하는 보고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과물 중심으로 접근하

다보니 결과물, 그리고 결과물을 얻기 위한 기록관리론에 치중한 보고서가 압도적이다. 이것은 문제이다. 기록의 편향성이 결과물 중심으로 쏠리는 것은 기록의 발전에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제도권에서 기록전문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든 일상과 지역에서 기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든, 개별적이고 특수한 기록상황을 찬찬히 읽고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표준화 시도를 잠시 접어두고 고유성에 대한 관심을 우선 증폭시켜야 한다. 일상의 기록생산은 고유성을 증식하는 기록과정이다. 바이러스가 인간의 신체로 들어가 서식하면서 나타는 의학적 증상처럼, 기록(관념, 상상)이 바이러스처럼 일상으로 파고들어 자리를 잡으면서 어떤 사회적 상황을 구성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실험적 논의가 풍부해질수록 일상과 기록의 관계는 보다 긴밀해질 것이다.

일상의 기록생산은 기록물에 대한 관리방안보다는 기록의 가능성을 탐구하려는 담론적 시도가 순서상 먼저이다. 기록의 가능성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여기서 인간은 추상적 존재가 아니다. 고통을 온전히 혼자 감당하며 사는 자기 자신, 자신과 긴밀하게 엮여 있는 타인(가족, 연인, 친구, 동료 등), 이런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존재로서 인간이다. 조직의 기록관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인간을 이해하고 그런 이해를 씨앗으로 삼아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일상의 기록생산에서는 기록이 무엇인가 하는 기록에 대한 표준적 정의보다는 가변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이다. 자기 자신은 기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과 긴밀하게 엮여 있는 타인은 기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먼저이다. 현재의 기록관리 방법론 안으로 수용하려는 것보다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로베이스에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일상의 기록생산을 다루었다. 그래서 기록관리의 중요성보다는 기록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기록관리의 방법론보다는 기록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삶의 의례에, 정보적 가치보다는 기록을 삶으로 수용하려는 이

유와 효과에 방점을 두었다. 일상의 기록생산을 아카이빙(기록을 기록하는 것) 하려면 인간에 관한 것이 더 긴요한 물음이다. 기록학은 인간학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 글이 일상의 기록생산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일상적 아카이브

일상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매체에 수록되는 기록물)에 한정하더라도, 이런 일상의 기록물이 모두 아카이브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그 반대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것(특히 매체에 수록되지 않는 감각, 정서, 생각, 언어 등)은 다시 그 사람의 삶으로 순환해 들어가기 때문이다. 늦가을의 낙엽은 겨울 내내 썩으면서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매체에 수록되지 않는 기록(기록과 더불어 발생한 것들), 매체에 수록되었어도 조직의 관점에서 가치가 없다고 분류될 수 있는 것들은 늦가을의 낙엽처럼 그 사람의 삶으로 스며들어가 그 사람의 삶을 강화한다. 아카이브의 지식 범위에서 일상의 기록생산을 빠서는 안 된다. 무엇을 기록할지, 어떻게 기록할지를 미리 정해둘 수는 없다. 일상의 기록은 인류 보편적인 안목과 미시적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구성되어야 한다.

일상의 기록생산은 조직의 기록생산과는 다르게 전개된다. 목적지도 다르다. 조직의 기록생산은 아카이브가 종착점이지 않으면 불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일상의 기록생산은 아카이브로 향하지 않을 때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 된다. 아카이브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카이브가 중요하다면, 일상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면서 자리를 잡을까? 인간의 언어에 어떻게 출현하고, 인간의 정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인간은 아카이브를 어떻게 수용하며 삶을 살아갈까? 방향을 바꿔야 한다. 아카이브를 어떻게 일상으로 이주시킬 수 있을지가 논점이다. 일상에 아카이브를 만들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건물이나 물체로서의 아카이브, 기록물이 가득

한 아카이브, 제도로서의 아카이브가 아니어도 일상에는 아카이브가 필요하다. 사람의 말과 정서에 자리를 잡는 아카이브, 기록물이 없어도 하나의 의미로 존재할 수 있는 아카이브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런 일상적 아카이브를 논의의 밑자락에 깔고 서술했다.

일상적 아카이브는 일상의 기록생산이 진행되는 기록공간이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사람들이 기록을 매개로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기도 하며, 기록이 무엇인지는 특정할 수는 없어도 기록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 있는 관념이다. 그리고 기록에 관한 것을 통용시킬 수 있는 언어이다. 일상적 아카이브는 사회적 관계에서 비로소 출현하며, 언어를 통해 구체화 된다. 일상적 아카이브는 언어(말)가 없으면 존재하기 어렵다. 기록물이 보관되는 보존서가 없어도, 기록전문직이 상주하지 않아도, 제도적 기반이 없어도, 일상에서 아카이브는 사람들의 관계와 언어에서 생성될 수 있다.

일상적 아카이브에 접근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국가기록원이나 대통령기록관 같은 아카이브를 방문해서 열람실에 앉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기록물을 보려고 할 것이다. 당연히 보인다. 기록접근성에 대한 물음과 논의는 이런 정답을 갖고 있다. 그러나 꼭 기록물이어야만 할까? 일상적 아카이브에 접근하는 사람은 다른 기록접근성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영화를 볼 때처럼, 어떤 기록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세계에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그 곳에서 펼쳐지는 기록상황을 관찰하고 체감하면서 기록의 의미에 대해, 인간의 삶에 대해 되새겨보는 것도 기록접근성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3장에서 ‘쓰는 곳에 간다’는 말을 했다. 이것을 상술해본다. 여기서 쓰는 곳은 일상적 아카이브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상적 아카이브에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영화를 보는 것과 영화관에 가는 것은 다르다. “영화를 본다는 것보다도 영화관에 간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밤에 외출하면서 재미와 흥분이 어우러진 편안함을 느낀다. 영화관은 이런 경험의 중요

한 부분을 포착한다. 영화는 영화를 판매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습관, 즉 어떤 유형의 사회화된 습관을 판매한다.”(데이비드 몰리). 데이비드 몰리는 수용자를 분석할 때 영화가 소비되는 콘텍스트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런 주장을 폈다. 익숙한 세계가 닫히고 새롭게 마주한 세계조차도 뒤틀려 있는 사람에게,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세계를 살아야 하는 새로운 사회적 습관이 아닐까. 일상적 아카이브에 간다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 습관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집안에서 혼자 슬퍼하는 것은 슬픔을 나눌 누군가와 함께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슬픔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새로운 행동을 제약한다(자작나무 에세이 모임 2014, 12). 자살유족의 새로운 사회적 습관을 위한 행동에는 자조모임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 1년에 2번 캠프에 참여하는 것, 에세이 작업(자살유족 기록작업)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있다. 여기에는 들어줄 상대가 있고 고통을 말과 글로 나눌 수도 있다. 어떤 이유에선가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 말의 고통에서 사는 사람들이 속에 있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은 따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자조모임에 나와 말로 고통을 토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 것 같다. 여기에서는 새어나오는 빛이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이 없다면 자조모임이나 기록작업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려는 시도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상적 아카이브에 가는 것은 규범의 측면에서 살펴야 한다. 일상적 아카이브에 가서 기록을 말하고 생산하는 것은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언어로 말하면서 남겨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사회적 습관은 사회적 규범의 다른 말이다. 규범(norm)은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판단의 기준’이다. 마치 지구에 중력이 작용해서 인간이 지표면에 몸을 던고 살 수 있듯이, 규범은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의 말, 글, 행동, 감정, 생각, 도덕, 윤리를 규율한다. 규범에는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다. 동시에 규범은 사회생활의 통로가 되어서 이것에 따르면 순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규범에는 다음의 세 차원이 있다. 첫째, 일상적 관행으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비웃음과 따돌림을 당한다. 이럴 때는 괜히 위축되고 울적해진다. 둘째, 도덕적 관습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본래적으로 규제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집단절교, 배제 등 물리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소수자가 차별을 겪으며 사회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셋째, 법규적 제도로 국가권력이 법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권력을 가지는 측은 사법작용을 통해 공적인 제재를 가한다. 공공기록관리법은 여기에 해당한다. 기록관리직은 기록물을 관리하는 직업이기보다는, 기록과 관련한 인간의 규범을 집행하는 직업이다.

참여정부 당시 기록혁신은 아쉬움이 있더라도 제도개혁만으로 충분했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규범의 변화로 확장해서 접근할 단계라는 생각이다. 이미 기록관리라는 규범이 던져진지 20년 가까이 되었다. 다시 기록혁신이라면 올바른 기록규범의 확산이라는 목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록혁신은 제도혁신으로만은 안될 것 같다. 이 물줄기가 흘러가는 평야가 규범이고, 그래서 규범의 변화로 넓혀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기록관리직이 일상적 아카이브에 관심을 갖는 방법을 제안하며 글을 마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록과 인간에 대한 윤리적 접근에 관한 것이다. 인간과 관련된 상황에서, 기록과 관련한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강렬한 내적 느낌이 중요하고, 이를 지탱하는 집단규율이 필요하다. 기록관리직이라면 이런 문제는 윤리강령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윤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규범은 지키면 모두가 편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어떤 집안에 성소수자가 있을 때 그가 침묵하면 (그를 제외한 모두가) 편안하다. 그러나 이런 규범은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기에 진정한 평화라 할 수 없어 계속 유지되기 힘들다. 기록공동체의 윤리도 그런 존재인 것 같다. 윤리강령은 무시할 때 모두가 편하다. 윤리강령을 들먹이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파진다. 윤리강령은 기록관리에서 외면할 때 현재의 관행적 기록관리와 문화를 집

행하는 데 편안하다. 기록종사자를 위한 재교육은 기록관리 실무에 집중된다. 윤리강령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자신의 기록관리 경험을 꺼내놓고 기탄없이 세미나 하면서, 올바른 기록규범을 위한 집단규율을 관리하는 그런 시간은 외계인의 시간처럼 느껴진다. 양성평등 교육이 직장생활의 필수과목화 된지 얼마 되지 않는다.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는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규범적 시도가 나타나 공동체 구성원의 언어와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규율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다. 윤리강령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다. 윤리강령의 상호규율이 기록관리 집행과정을, 기록공동체 내부의 사회적 관계를,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의 사회적 관계를 평등하게 하는 데에, 신뢰성 있게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 본다. 기록관리 종사자에게 매년 윤리강령 교육을 의무화하면 어떨까 한다.

올바른 기록규범의 확산은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 인간과 기록에 대해, 사회와 기록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아카이브에서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기록의 상상력에는 일상의 기록생산도, 일상적 아카이브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글을 마친다.

〈붙임 1〉 연대기 작성법

마음 깊은 곳에는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자신의 삶이 있다. 그러나 말해야 하고, 써야 한다. 삶을 쓰는 첫걸음은 연대기를 작성하는 것이다.

삶의 빛나는 계열과 그림자 계열을 같이 씁니다. 두 사건이 섞일 때 새로운 의미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좌절과 실패를 담담히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동무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명예를 손상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임상역사는 ‘빛과 그림자’를 같이 포착해서 새끼를 꼬듯이 이 둘을 섞어서 교직하는 작업입니다. 인생의 따뜻했던 시절과 주름진 것들을 함께 기록합니다.

〈빛나는 계열의 사건과 그림자 계열의 사건〉

빛나는 사건	○ 기쁨, 자부심, 성취감이 느껴지는 사건 ○ 따뜻했던 시절에 대한 추억 ○ 사회적으로 성취하여 살아온 날들을 말해줄 수 있는 사건 ○ 때로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딱히 감출 이유가 없는 사건 ○ 술자리, 수다, 공식석상에서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는 사건
그림자 사건	○ 슬픔, 실패, 좌절로 기억되는 사건 (상처/트라우마) ○ 친구, 배우자, 연인, 막역한 사이에서도 꺼내놓기 힘든 사건 ○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것들 ○ 용기를 내야 말할 수 있는 사건 ○ 하느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사건

- 바닥까지 써내려 가기를 권유합니다. 바닥에 닿아야 비로소 바닥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왕에 시작했으니 심연에 닿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응하는 보상이 충분합니다. 물론 심연은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여러 겹의 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심연인지 얼마나 깊은지 어떤 이유로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지는 본인이 압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바닥에 닿기를 원하는지, 과연 닿을 수나 있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어떻게? 이번만큼은 내면에 어떤 충동질이 일면 그 충동질에 자기 자신을 맡겨두기 바랍니다.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작업 경험에 비춰보면 자신을 내맡길 때 오히려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다른 누구를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깊이 자신에게 몰입해 들어가는 것만큼 인생이 깊어집니다. 내가 바라는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동무여, 그대가 원하는 것이 그대의 운명이고, 그대의 운명은 그대가 원하는 것이랍니다.” 나의 역사는 내가 쓴다는 사실이 있어 나의 역사가 됩니다.

부디 내면의 충동질에 이끌려 일필휘지로 써내려가세요.

- 마음이 이끄는 대로, 체계 없이 무질서하게, 기억이 나는 것을 순순히 쓴다
-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는다 (사건을 평가하거나 해명하지 않는다)
- ‘마음이 스산해지더라도’ 무미건조하게 써내려 간다. (매우 중요! 끝까지 가는 방법. 완주가 목표)
- 간결하게 적는다.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적는다
- 사건기술의 마지막 문장은 감정의 한 줄입니다 (예 : 기뻐다, 슬펐다)
-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연대기 작성 범례

1. 연대기 사건마다 숫자로 번호를 적는다 (예 : 1,2,3)
2. 가능한 육하원칙에 따라 적는다.
 - (언제) 계절이나 월이 기억에 남으면 쓴다. 밤낮, 오전오후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구분한다
 - (언제) 만약 몇 년에 걸친 사건이라면 시작한 해에 쓰되, 언제까지 지속되었음을 밝힌다
 - (어디서) 어떤 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쓴다 (예 : 집, 교실, 기차, 버스, 운동장)
 - (누구와) 누구와 엮인 사건인지 쓴다 (이름을 쓸 때는 가명을 쓰되, 필요하다면 실명을 쓴다)
 - (어떻게) 무미건조하게 작성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시 상황을 담담히 적는 것이다.
 - (왜)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을 적어 본다.
3. 사건마다 느낌을 적어 본다. 먼저 사건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한 후, 마지막 문장으로 느낌을 적는다(예 : 기뻐다). 단, 느낌이 딱히 없다면 무리해서 쓰지 않아도 괜찮다.
4. 평가와 해명은 하지 않는다. (*매우 중요. 어떤 경우든 평가와 해명은 하지 않는다. 우선은 당시 있었던 일을 있었던 그대로 전한다는 심정이 중요하다)
5. 1세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흐름대로 적되, 출생기부터 적는다.

〈출생기 작성요령〉

- 출생기에서 중요한 것은 태어날 때 상황이다

- 양육자는 친부모에 한정하지 않고 자신을 양육해준 사람은 다 적는다 (예 : 할머니)
- 부모님이 서로 다정할 때 모습과 사용하던 말 (유난히 기억에 남은 것을 쓴다)
- 부모님이 싸울 때 모습과 사용하던 말 (유난히 기억에 남은 것을 쓴다)
- 전체적인 집안 분위기를 적어본다 (예 : 화목했다, 어두웠다)
- 주변에 들은 얘기라면 가급적 누가, 언제, 왜 그런 말을 했었는지도 같이 적는다.

〈출생기 주요 사건〉

- 태어난 곳은 어떤 곳인지 (집/병원, 지역 등)
- 태어날 때 집안 분위기
- 가족관계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자매 여부)
- 당시 엄마의 나이, 직업, 고향, 종교 및 특이사항
- 당시 아버지의 나이, 직업, 고향, 종교 및 특이사항
- 성장하면서 주변에서 들은 첫 돌까지 나의 모습

6. 기억나는 것을 찬찬히 써내려간다. 어렵겠지만, 자신을 구속하거나 검열하지 않는다. 쓰는 그 순간 떠오르는 것은 일단 적는다. 이런 반론이 생길 수 있다(너무 많지 않은가? 지나치게 자잘하지 않은가? 이런 건 누구나 겪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써야 하나?). 그러나 일단 가감 없이 적어가면서 현재까지 쭉 써내려간 후에, 다시 생각한다. 문제는 분량이다. 사건 자체가 자잘한 것이 아니라 발표하고 얘기를 나눌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자체로 쓸모없는 사건이기보다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이번에는 이것, 이것, 이것을 말해보자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7. 최초의 기억은 ‘반드시’ 쓴다(예 : 5살 때 아버지에게 혼났던 사건).
8. 당시 용어로 쓴다 (예 : 초등학교 → 초등학교. 많이 맞았다 → 작날 나게 맞았다)
9. 내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회적 사건은 쓰지 않는다 (사회연표 작성이 목표가 아니다). 다만, 사회적 사건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는, 내 삶의 한 사건으로 가져와 쓴다.
10. 분량의 제한은 없으나, 발표 시에는 10쪽 내외가 좋다. (규칙 : 낭독 20~30분, 이후 대화 60분).

〈작성예시 1 : 항목화 작성방식〉

홍길동의 연대기(1968~2012)

출생기(1968년생)

1. 강원도의 가난한 작은 어촌마을에서 태어났다. 20세에 대학진학을 위해 서울로 오기 전까지 고향에서 살았다. 태어날 당시 우리집은 초가였다. 나는 2남 2녀의 장남이었다. 위로 누나가 둘 있었는데 각각 다섯 살, 세 살 터울이었다. 3년 후에 남동생이 태어났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계시지 않았다.

2. 당시 어머니는 25세였고 전업주부였다. 요즘 도시의 전업주부와는 달랐다. 그 시절 바닷가 마을의 가난한 어촌의 전업주부는 어부가 되어 배 타고 바다가 나가는 것 말고는, 거의 모든 것을 다했다. 어머니 고향은 깊은 산골의 동쪽마을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2시간 가까이 걸어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다. 어머니는 세 자매 중 둘째였다. 어머니는 7살에 고아가 되었고 18세에 되던 해 아버지와 결혼했다.

3. 당시 아버지는 30세였고 어부였다. 아버지는 고향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생을 마감했다. 아버지는 4남매 중 (손위 고모 한분) 셋째였다. 결혼 당시 아버지는 머슴살이를 했다고 한다.

4. 내가 태어날 때 집안분위기는 잘 모르겠다. 국민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 화목한 편은 아니었다.

5. 아버지는 장남이라며 첫 돌이 지난 후부터는 나를 자주 안고 동네를 다니며 자랑하곤 했다고 한다.

6.

유아기(초등학교 입학 전, 1968년~1974년)

1. (최초 기억) 정확하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것으로 기억이 된다. 어느 겨울날 안방에서 어머니가 무척 화를 내면서 우리 4형제를 모두 심하게 야단치면서 순에 들고 있던 회초리로 매를 들었다.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나는 매우 무서웠다. 무척 무서웠던 기억이 난다.

2.

* 연도별로 기억하기 어려우면 시기별로 대략적으로 기술한다. 아래, 국민학교 시절의 '시기별 서술방식' 참조

〈작성예시 2 : 에세이식 작성방식〉

홍길동의 연대기(1968~2012)

국민학교 시절(1975년~1980년)

1. 봄이었던 것 같다. 학교로 가는 길에 자전거에 부딪혔다.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몰던 동네 형이 미처 나를 피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 때 같이 가던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며 동네 형과 대판 싸웠다. 당시 꽤 아팠을 텐데, 통증보다는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에 무척 놀랐던 기억이 난다.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 기뻐다.

2. 한번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 몇 명과 땅바닥에 사람을 그리며 놀았다. 같이 있던 한 형이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던 것 같다. 한 친구가 갑자기 그림이 그게 뭐냐고 놀랐다. 그 때 무척 창피했고 수 치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3. 한번은 운동회가 끝난 저녁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큰누나가 나를 등에 업고 집까지 걸어온 적이 있었다. 누나 등이 참 따뜻했다.

4. ……

중고등학교 10대 시절(1981년~1986년)

1. ……

20세 이후 (1987년~2012년 현재)

1.

2.

※ 평가와 해명은 하지 않습니다. 하다보면 아무래도 부연설명을 하고 싶은 충동이 내면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곤란합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평가와 해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에서 쓸 때 자기평가나 자기해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무들 앞에서 낭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마디도” 부연설명(배경설명)을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끼어들면 깊이 들어가기 어렵고 심연에 닿기 어렵습니다. 풍덩 바닷가에 다이빙하듯 자기 안으로 입수해야 하는데, 설명을 시작하기 시작하면 바닷물이 콘크리트가 됩니다.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쓸 때도, 낭독할 때도, 이후 대화를 나눌 때 설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쓰고 읽으세요. 정말이지 그 후에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전혀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낭독 후, 동무들과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10년 동안 이 작업을 해오면서 알게 된 경험적 사실입니다.

〈참고문헌〉

- 강명수. 2015. 자살 유가족을 위한 가족 상담과 치료적 개입. 『연세상담코칭연구』, 4, 9-31.
- 국제기록회의 인권작업단. 2016. 『인권 옹호를 위한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국제기록회의 작업문서).
- 김영아. 2016. 자살 유가족(suicide survivors)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35(1), 43-63.
- 김정남. 2015. 부모자살을 경험한 청소년의 외상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재활심리연구』, 22(1), 183-201.
- 김왕배 외. 2013. 자살예방과 생존자 치유를 위한 의료종교학적 접근의 전망과 과제. 『보건과 사회과학』, 34, 37-60.
- 박지영. 2010.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생존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사례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6, 203-231.
- 생명의 전화. 2007, 『자살예방 : 유족들을 위한 자조모임 시작하기』, 서울 : 생명의 전화.
- 생명의 전화. 2010,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의 회복 I』, 서울 : 생명의 전화.
- 생명의 전화. 2010,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의 회복 II』, 서울 : 생명의 전화.
- 서울대학교병원. 2016, 『자살유가족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 : 2016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2010, 『자살시도자를 위한 자살예방 프로젝트 : 흔들리며 피는 꽃』, 서울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서종한 외. 2018. 심리부검 기반 자살유형 연구. 『보건사회연구』, 38(2), 350-393.
- 신영복. 2015, 『담론』, 파주 : 돌베개.
- 오도. 2013, 『씨앗 받는 농사 매뉴얼』, 파주 : 들녘.
- 오진탁. 2008, 『자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 서울 : 세종서적.
- 이구상 외. 2014. 자살유족의 소비자참여를 통한 집단 서비스 개발 연구. 『정신보건』, 5권, 86-92.
- 이명훈. 2014. 친구를 잃은 대학생 자살생존자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신학논단』, 76, 293-323.
- 이영남. 2007. 『푸코에게 역사의 문법을 배우다』. 서울 : 푸른역사.
- 이영남. 2016. 기록학과 윤리적 관점. 『기록학연구』, 50, 5-60.
- 이영남. 2018. 기록학과 교육적 관점 : 기록향연,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57, 165-234.
- 이정연. 2015. 인권기록유산 가치와 지평의 확산 :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5, 121-153.

- 이종찬. 1994. 근대 임상의학의 형성에 관한 두 가지 다른 역사적 해석. 『의사학』, 3권2호(통권 제5호), 202-217.
- 이현정. 2017. 참여와 개입-공동체아카이빙 윤리의 모색, 한국기록학회 제117회 월례연구발표회 발표문(2017.9.9).
- 자작나무 에세이 모임. 2013, 『자작나무 :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다섯 사람의 이야기』, 서울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 자작나무 에세이 모임. 2014,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네 사람의 이야기』, 서울 : 푸른역사.
- 정은진. 2017. 치유로서의 기록관리 제안, 한국기록학회 제117회 월례연구발표회 발표문(2017.9.9).
- 조민지. 2011. 기억의 재현과 기록 기술 담론의 새로운 방향. 『기록학연구』, 27, 89-118.
- 조민지. 2018. 국가기록 전시의 의미화에 대한 이용자 수용과 변화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57, 5-33.
- 조은성. 2013.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7, 75-142.
- 조항범. 2016, 『우리말 어원 이야기』, 고양 : 예담.
- 최주희. 2018. 기독교인 자살 유가족의 사별 경험.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9권 제2호, 213-258.
- 황임경. 2007. 환자, 의사, 그리고 텍스트 : 해석학의 관점에서 본 의료. 『의철학연구』, 3, 117-137.

- Albert Camus, 1942. Le Mythe de Sisyphe, Paris : Gallimard. (김화영 역. 1997. 『시지프 신화』. 서울 : 책세상).
- Albert Camus, 1947. The Plague (French : La Peste). Paris : Gallimard. (유호식 역. 2015, 『페스트』, 파주 : 문학동네).
- Albert Camus, 1957. L'exil et le royaume. Paris : Gallimard. (김화영 역. 2014. 『적지와 왕국』. 서울 : 책세상).
- Beverly Cobain, Jean Larch, 2005. Dying to be free : a healing guide for families after a suicide. M,N. : Hazelden Publishing. (이혜선 외 역. 2010.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치유 : 자살 유가족을 위한 치유 가이드』. 서울 : 시그마프레스).
- Bruno Blasselle, 1997. Histoire du livre, Paris : Gallimard. (권명희 역. 2009. 『책의 역사 : 문자에서 텍스트로』. 서울 : 시공사).
- Carla Fine, 1999. No Time to Say Goodbye : Surviving the Suicide of a Loved One. N.Y. : Broadway Books. (김운하 역. 2012. 『너무 이른 작별』. 서울 : 궁리).

- Eric J. Cassell, 1986. *The Nature of Suffering and the Goals of Medicin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강신익 역. 2002. 『고통 받는 환자와 인간에게서 멀어진 의사를 위하여』. 서울 : 코기토).
- Georges Jean, 1987. *L'Ecriture : Mémoire des hommes*. Paris : Gallimard. (이종인 역. 2014. 『문자의 역사』. 서울 : 시공사).
- Geroge Orwell, 1946. *Why I Write*. London : Gangrel. (이한중 역. 2010. 『나는 왜 쓰는가』. 서울 : 한겨레출판).
- Gulino, Paul Joseph, 2004. *Screenwriting : The Sequence Approach*. London : A&C Black. (김현정 역. 2009. 『시나리오 시퀀스로 풀어라』. 서울 : 황매).
- Herman Melville, 1851. *Moby-Dick*. Richard Bentley (Britain)& Harper & Brothers (US). (김석희 역. 2011. 『모비 딕』. 파주 : 작가정신).
- Howard, David, Mabley, Edward. 1993. *The Tools of Screenwriting : A Writer's Guide to the Craft and Elements of a Screenplay*. N.Y : St. Martin's Press. (심산 역. 1999. 『시나리오 가이드』. 서울 : 한겨레출판).
- Ivan Illich, 1993. *In the Vineyard of the Text : A Commentary to Hugh's Didascalicon*. IL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정영목 역. 2016. 『텍스트의 포도밭』. 서울 : 현암사).
- Jill Bialosky, 2011. *History of a suicide : my sister's unfinished life*. N.Y. : Simon and Schuster. (김명진 역. 2012. 『너의 그림자를 읽다』. 서울 : 북폴리오).
- John A. Sanford, 1977. *Healing and Wholeness*. N.Y. : Paulist Press. (김중원 역. 2005. 『만남, 대화 그리고 치유』. 서울 : 하나의학사).
- Lisa Schirch, David Campt, 2007. *The Little Book of Dialogue for Difficult Subjects : A Practical, Hands-On Guide (The Little Books of Justice & Peacebuilding)*. Goodbooks. (진선미 역. 2015. 『공동체를 세우는 대화 기술』. 서울 : KAP).
- Ludwig, Otto, 2005. *Geschichte des Schreibens Bd. 1, Von der Antike bis zum Buchdruck*. Berlin : Walter de Gruyter. (이기숙 역. 2013. 『쓰기의 역사』.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Marjorie Shostak, 1981. *Nisa : The Life and Words of a !Kung Woman*. N.Y : Vintage. (유나영 역. 2008. 『니사』. 서울 : 삼인).
- Michel Foucault, 1963. *Naissance de la clinique - une archéologie du regard médical*. Paris :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홍성민 역. 2006. 『임상의학의 탄생』. 서울 : 이매진).
- Nicholas Wolterstorff, 1987. *Lament for a Son*. M.I. : Wm. B. Eerdmans Publishing. (박혜경 역. 2003.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서울 : 좋은 씨앗).
- Ohrtmann, Fritz, 1980. *Tee mit Rum, Erzählungen und Gedichte*. Husum : Matthiesen Verlag. (안병률 역. 2010. 『곰스크로 가는 기차』. 고양 : 북인더갭).

- R. Murray Schafer, 1992. A Sound Education : 100 Exercises in Listening and Sound-making. Ontario : Arcana Editions. (한명호 역. 2015. 『소리교육1』. 홍성 : 그물코).
- R. Murray Schafer, 2005. HearSing : [75 exercises in listening and creating music]. Ontario : Arcana Editions. (한명호 역. 2015. 『소리교육2』. 홍성 : 그물코).
- Richard Wrangham, 2009. Catching Fire : How Cooking Made Us Human. London : Profile Books. (조현욱 역. 2011 『요리 본능』. 서울 : 사이언스 북스).
- Roland Barthes, 1973. Le Plaisir du Texte. Paris. : Éditions du Seuil. (김화영 역. 1997. 『텍스트의 즐거움』. 서울 : 동문선).
- Schlumbohm, Jürgen. 백승중 외 편역. 2003. 『미시사의 즐거움』. 파주 : 돌베개.
- Sigmund Freud, 1955.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 VOL. II. (1893-1895) : STUDIES ON HYSTERIA. London : Hogarth/Institute of Psycho-analysis. (김미리혜 역. 2004. 『히스테리 연구 1』 (프로이트 전집 3). 서울 : 열린책들).
- Stone, Douglas, Patton, Bruce, Heen, Sheila, Fisher, Roger. 1999. Difficult Conversations. N.Y. : Viking Adult. (김영신 역. 2003. 『대화의 심리학』. 서울 : 21세기북스).
- Walter J Ong, 1982. Orality and literacy :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London; N.Y. : Methuen. (이기우 외 역. 1995.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서울 : 문예출판사).
- William Glasser, 1985. Control Theory : A New Explanation of How We Control Our Lives. N.Y : Harper & Row. (이인자 역. 2008. 『당신의 삶은 누가 통제하는가』. 서울 :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小澤征爾, 村上春樹. 2011. 小澤征爾さんと、音楽について話をする. 東京 : 新潮社. (권영주 역. 2014. 『오자와 세이지 씨와 음악을 이야기하다』. 서울 : 비채).
- 是枝裕和. 1999. ワンダフルライフ. 東京 : 早川書房. (송태욱 역. 2015. 『원더풀 라이프』. 서울 : 서커스)
- 是枝裕和. 2016. 映畫を撮りながら考えたこと. 東京 : ミシマ社. (이지수 역. 2017.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 서울 : 바다출판사).
- 鷺田清一. 1999. 聴く」ことの力 : 臨床哲學試論. 東京 : CCCメディアハウス. (길주희 역. 2014. 『듣기의 철학』. 서울 : 아카넷).
- 河合隼雄, 谷川 俊太郎, 立花 隆. 2006. 読む力・聴く力. 東京 : 岩波書店. (이언숙 역. 2007. 『읽기의 힘. 듣기의 힘』. 서울 : 열대림).

